

# 주어만 제대로 써도 이공계 글쓰기 90%는 해결한다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생략해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글을 쓸 때 주어를 생략하면, 읽는 사람이 앞 뒤 문맥이나 상황을 일일이 고려해야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한글은 영어와는 달리 주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어 없는 문장이 많다. 그러나 주어가 없으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 읽는 사람이 헷갈리게 된다. 쉬운 내용이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핵심 단어 하나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쓰인 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는 글은 주어가 있어야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따라서 문장에 의식적으로 주어를 넣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문장에 주어를 넣어보면 의미가 분명해질 뿐 아니라 문장이 깔끔해진다.

문장에 주어가 없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리글이 영어와 달리 주어가 없어도 문장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가 서술어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주어를 빼버리면 그 만큼 문장이 짧고 간단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야 우리글의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이유는 천만의 말씀이다.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의미가 모호해져 오히려 글자 수가 많아지고, 당연히 쓸데없이 긴 문장이 된다.

또한, 기술자가 쓴 글은 주어가 있어도 사물을 주어로 한 수동태의 문장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장도 ‘누가’ 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주어가 있어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하지 않으면 주어가 없는 것과 같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지 못한 문장은 누가 무엇을 한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자가 쓴 글은 엄밀하게 따지면 90% 이상 주어가 없다. 기술자가 주어만 제대로 써도 글쓰기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1〉 진동이 발생하면 배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 진동은 배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2〉 새해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 송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새해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한송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만큼 전력공급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문 1〉에서 무엇이 야기하는지 주어가 없다. ‘진동이 발생하면’을 ‘진동은’으로 바꾸어 주면 주어도 살고 글자의 수도 줄일 수 있다. 〈예문 2〉의 문장은 두 가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캘리포니아주에서’가 주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될 수가 있다. 우리말은 비인칭 주어 조사로 주어가 단체나 기관일 때 ‘에서’를 사용한다. 예로써 ‘정부에서 때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내놓았다’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이 관형절(명사를 수식하는 절)이 되기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가 생략된 주어로 해석할 수가 있으나 그러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된다. 위기의 주체를 ‘캘리포니아주에서’로 하는 것보다는 ‘전력공급’로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주어를 살리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 인칭주어를 사용하자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관련된 내용을 표시할 때 영어는 무생물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글은 생물을 우선한다. 그만큼 인본주의의 성향이 높다. 그러나 무생물을 주어로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영어의 영향으로 습관적으로 무생물 주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되도록 무생물보다는 생물을 주어로 사용하자. 그러면 한결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연구소 41주년 창립 기념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전 직원의 뜻을 새겨  
여기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위의 예문은 명시적으로 주어가 없다. 연구소가 묵시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인칭주어로 바꾸면 문장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전 직원이  
연구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여기 태극기를 높이 게양합니다.

여기서 흥미 있는 부분을 소개할까 한다. 고치기 전에 ‘여기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라는 설명이 들어 있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이 시설을 공사한 시설과가 게양대를 설치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생이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1〉 연속된 실험 실패가 연구팀을 힘들게 했다.  
☞ 실험이 연속적으로 실패하여 연구팀은 힘들었다.  
〈2〉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는 계속하여야 한다.

〈1〉에서 ‘힘들다’라는 서술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의미를 혼란스럽게 한다. ‘실험 실패’를 주어로 하지 말고 ‘힘들다’의 주체인 ‘연구팀’이라는 인칭주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2〉에서도 ‘사업’이 아니라 ‘우리’를 주어로 하여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 능동태로 쓰자

무생물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장이 수동태가 되기 쉽다. 특히 기술자는 습관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많이 쓴다.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하면 원래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주어가 가지는 글자 수만큼 그 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글자 수에 관한 한 주어가 없으면 뜻이 분명하지 못하여 글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또한 사물을 주어로 사용함으로써 주어를 일일이 밝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행위의 주체가 없어 뜻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우리글에 수동태의 글이 많아진 것은 영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미국도 수동태 문장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라고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다. 되도록 문장을 능동태로 쓰는 버릇을 기르자.

- 〈1〉 이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다루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다루고 있다.  
〈2〉 핵연료의 새로운 제조법이 소개된다. 이 연구에서는 핵연료의 새로운 제조법의 채택으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이 확인된다.  
☞ 이 연구는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핵연료의 새로운 제조법을 소개한다.

논문들을 읽다보면, 〈1〉과 같이 주어가 없는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된다. 예전에 영어 논문에서 ‘In this report, it is investigated that ……」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서도 사라진 표현이다. 요즘은 ‘This report investigates ……」라고 주로 쓴다. ‘보고서’를 주어로, 능동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더 이상 ‘보고서에 서는’ 같은 표현을 주어인양 쓰지 말자.

〈2〉에서는 누가 새로운 제조법을 소개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새로운 제조법이 남에 의하여 이미 소개된 기술인지 해당 연구팀이 최초로 소개하는 기술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연구’를 주어로 하면 주체가 분명해진다. ☉

# 주 어 와 서 술 어 가 서 로 호 응 해 야 한 다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lec-writing@hanmail.net

주어를 빠뜨리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다. 주어와 술어가 호응을 이루지 못하면 비정형적인 문장, 즉 비문이 된다. 이러한 비문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어렵게 하고 글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

〈1〉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 ~ 위한 최선의 방법은 ~

~ 위해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한다.

〈2〉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하였다.

→ ~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에서 ‘다하는 것’의 주어가 없다. 따라서 ‘방법’이라는 주어가 호응을 이루어야 한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해서 ‘누구든지’라는 일반 주어에 호응하는 ‘다해야한다’라는 서술어를 갖다놓아야 한다. 〈2〉의 경우는 ‘이유’에 대한 서술어인 ‘때문이다’가 있어야 한다.

‘나는 영화가 보고 싶다’라는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하는 문장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울산이 살기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 같은데 주어가 세 개나 있고 서술어는 하나만 있어 이상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문법은 영어에 비해 훨씬 간편한데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이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자.

## 우리글의 기본 문형

다음 문장이 맞는지 한번 자신의 우리 글 실력을 점검해보자. 두 개만 맞추어도 평균 이상이다.

예제1 : 토끼는 꼬리가 짧다.

예제2 : 원자력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가스의 배출이 없다.

예제3 : 나는 그가 좋다.

예제4 : 나는 영화가 보고 싶다.

예제5 : 한국은 울산이 살기가 제일 좋다.

예제6 : 나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

예제7 : 그는 돈(만)은 많다.

우리글의 기본 문형은 세 가지이다.

(1) 나는 학생이다.

바람이 분다.

하늘은 푸르다. (주어+서술어)

(2)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주어+목적어+서술어)

(3) 나는 어른이 된다.

나는 선생님이 보고 싶다.

그는 철수를 양자로 삼았다. (주어+보어+서술어)

\* 여기서 ‘어른이’, ‘선생님이’는 외형상으로는 주어로 보이나 실은 보어이다. ‘양자로’는 ‘철수’라는 목적어를 보완하여 주는 보어이다. 보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보완한다.

홀문장 안에서 확장하는 예문이다.

(1) 와! 나는 학생이다. (독립어)

(2) 튼튼한 나는 요일나에 힘든 운동을 한다. (관형어)

(3) 나는 선생님이 무척 보고 싶다. (부사어)

겹문장으로 확장하는 예문이다.

(1)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2) 여름이 오니 녹음이 우거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3) 이 책이 재미있음이 분명하다. (명사절, 주어절로

안긴 문장)

(4) 나는 이 책이 재미있음을 알았다.

(명사절, 목적어절로 안긴 문장)

(5) 이 책이 재미있다는 소식을 나는 들었다.(관형절로 안긴 문장)

(6) 나는 이 책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인용절로 안긴 문장)

(7) 이 책은 재미가 있다.(서술절로 안긴 문장)

(8) 나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부사절로 안긴 문장)

명사절의 주어와 보어를 학자에 따라서는 이중 주어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 코끼리는 코가 길다.

(2)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3) 그는 배가 아프다.

앞의 예제 1)과 2)는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다. 3)의 ‘그가’와 ‘영어가’는 보어이거나 2중 주어이다. 5)는 3중 주어문이다. 6)과 7)은 외형상으로 주어로 보이나 ‘은’은 비교격 조사로 주어와 목적어를 비교할 때 쓴다. ‘그는 돈이 많다’와 ‘그는 돈은 많다’의 차이는 두 번째 것은 비교격으로 ‘그는 돈은 많은데 다른 것은 많지 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문법은 이렇게 간단한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기로 한다. ‘철수만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며 어떤 문형일까.

헷갈린다.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철수 혼자 바보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바보라는 뜻이다. (2) 철수뿐만 아니고 모두 바보라는 뜻이다. 두 가지 모두 맞는 해석이다. 구조적으로 이 문장은 이중으로 해석이 되게 되어 있다. (1)은 ‘바보가 아니다’를 명사절로 보는 경우이다. (2)는 ‘바보가’를 보어로 보는 경우이다. 이중 주어를 주장하는 학자는 문법을 간단하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러한 예문에 부딪치면 답변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주어와 서술어의 간격을 최소화하라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는 서술어에 들어 있다. 중요한 정보는 되도록 빨리 제시해야 한다. 한글은 영어와는 다르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중요한 정보가 빨리 제시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 한글은 주어까지 생략을 할 수 있어 정보전달 기능으로서 한글은 매우 취약한 언어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없고 곧 뒤따라 핵심정보가 들어 있는 서술어를 배열함으로써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언어이다. 한글의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길은 주어와 서술어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의 청소년 과학화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과학화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이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과학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은 연구보고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은 문장으로 여러 번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 이 때 짧은 문장의 배열은 정보 가치가 높은 순으로 하는 것이 실용적인 글쓰기이다. 

# 논리적인 틀이 있는 글 쓰기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 전투와 글쓰기

글쓰기는 좁은 문으로 군인을 한번에 한사람씩 통과시키는 과정에 비유되기도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은 대규모의 부대를 행진시켜 이 좁은 문을 통과시키는 사단장과 같으며, 읽는 사람은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한 부대를 다시 정렬시키는 다른 사단장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처음 사단장이 의도한 전투 대형을 다른 사단장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합성하여 그 대형을 재현하는 것이다.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단장이 전투대형을 빠르고 쉽게 파악하도록 하려면 처음 사단장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일이 병사 한명 한명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중대장이나 대대장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연대장의 위치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전투대형을 한 마디로 나타낼 수 있으면 더 좋다.

글쓰기에서 ‘한마디의 전투대형’이 주제이다. 주제만 들어도 내용의 반은 파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전투대형을 구성하는 몇 명의 연대장 위치’가 전투대형의 보충자료가 되듯이 글쓰기에서는 이를 소주제라 한다. 소주제는 문단이라는 형식에 담아 쉽게 구분이 되도록 하고 문단 제일 앞 문장은 ‘연대 깃발’의 효과가 있는 소주제문을 배치해야 한다. 글을 읽는 사람은 주제와 몇 개의 소주제문만 보아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글쓰기가 되는 것이다.

전투대형만 갖춘다고 전투가 되지 않는다. 전술이 필요한데 전술은 전쟁의 순서이다. 글에서 전술은 논리에 비유된다. 배경 설명이 부족하거나 논리가 건너뛰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글쓰기가 될 수 없다.

기술자가 사무적으로 쓰는 글은 감정에 호소하여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약도 그리듯이 주요 사실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면 되고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원칙1; 약도의 방향 읽는 사람을 고려한 글쓰기

원칙2; 약도의 길 구도 논리적인 틀이 있는 글쓰기

원칙3; 약도의 단순 명쾌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

이번부터는 원칙2; 논리적인 틀이 있는 글쓰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약도에서 방향을 정하면 다음은 길의 구도를 잡는다.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출발지에서 목표까지 헛갈리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는 길을 결정한다. 그리고는 큰길 몇 개로 구도를 잡는다. 글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 전개 방식을 결정한다. 그리고는 문단 몇 개로 글의 틀을 짤다.

## 주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제를 잡을 때나 주제를 대표하는 제목을 붙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범위를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 일전에 ‘대기환경오염 가스의 측정’이라는 제목의 연구 신청서를 검토한 적이 있었다. 연구 필요성을 읽어보았는데, ‘남극 얼음이 녹아내리고 산성비로 핀란드 호수의 반이 물고기가 살지 못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연구과제가 전 지구적이고 국제적인 것이구나 하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도심 차량 배기가스 측정’이었다. 이처럼 막연하고 포괄적인 주제는 글의 명확성을 흐리게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읽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주제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한정해야 한다. ‘환경오염’은 주제가 너무 넓다. 이보다는 ‘수질오염’이 보다 좁은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중랑천 오염’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좁혀서 구체성을 갖추어 나가면 ‘전자빔을 이용한 중랑천의 염색폐수 저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환경오염→수질오염→중랑천 오염→중랑천의 공장폐수 오염→중랑천의 염색 폐수 오염→중랑천의 염색폐수 저감 대책 전자빔을 이용한 중랑천의 염색폐수 저감

주제가 결정되면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주제문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주제문은 전체 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글의 전개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주제문은 ‘전자빔을 이용하여 중량천의 염색폐수를 저감한다’이다. 주제문이 결정되면 이것을 곧 바로 제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의 주제문을 제목으로 바꾸면 ‘전자빔을 이용한 중량천의 염색폐수 저감대책’이 제목이 되는 것이다.

## 주제는 하나여야 한다

주제가 둘 이상이거나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형설수설하는 글이 된다. 그러므로 주제는 하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어 내었다. 이 과정에서 히딩크 감독은 우리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웅이 되었다. 붉은 악마의 응원 또한 우리 국민의 힘찬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2002년 월드컵’에 대하여 느낀 점을 적어보라고 하였더니 한 학생이 위와 같은 요지의 글을 지었다. 주제가 세 가지로 분산되어 있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하나의 주제에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제를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관점이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 진출로 세계 속에 우뚝 솟는 한국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 대표팀 경영기법이 빠르게 기업에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 붉은 악마의 응원은 전 세계에 강력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수 조원의 홍보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 글을 구상하기

길을 찾기 위해서는 약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 가듯이 글도 순서대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잡아야 하는데 이를 글의 구상이라고 한다.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글의 재료, 즉 제재를 수집해야 한다. 제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을 풍부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제재를 성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놓으면 글 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분류된 제재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순서대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글의 구상이라고 하는데 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구상 - 시간적 구상

공간적 구상

논리적 구상 - 거시적 구상 - 3단 구성 - 서론, 본론 및 결론

도입, 전개 및 정리

4단 구성 - 기, 승, 전, 결

5단 구성 - 주의환기, 과제제시,

과제해명, 해명의 구체화

및 결론

미시적 구상 - 문제-해결 또는 해결-문제로 배열

원인-결과 또는 결과-원인으로 배열

중요한 순서나 동등한 내용을 성격별로 배열

비교나 대조 또는 옹호나 비판


시간과 공간에 따라 구상하는 방법을 자연적 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사건이나 사물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시간적 구상은 역사나 활동보고 등의 전개에 유용하며, 공간적 구상은 제품설명이나 기행문 등에 활용한다.

## 〈시간적 구상의 예〉

연구결과를 산업화하기 위해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을 찾아 나섰다. 여러 군데를 다녔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외의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 〈공간적 구상의 예〉

리모콘 왼쪽 상단의 붉은 것은 전원스위치이며, 옆의 것은 작동시간 조절기이다.

인과관계를 중시하여 사안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을 논리적 구상이라 한다. 논리적 구상은 글을 전개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상법으로 글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시적 구상과 글의 각 부분을 전개해 나가는 미시적 구상으로 나누어진다. 

## 글의 윤곽 잡기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글의 전체 윤곽을 잡는 거시적구상은 3단 구성법으로 잡는다. ‘서론-본론-결론’이나 ‘도입-전개-정리’로 나누어진다. 사안의 인과관계를 중시하여 논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논문은 이 형식을 채택한다. 3단 구성법은 논문 작성법의 기본이며, 4단이나 5단 구성법은 3단 구성법을 기본으로 확대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단 구성법은 한시의 시상 전개방법에서 유래하였는데, ‘기<起>-승<承>-전<轉>-결<結>’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설이나 신문 논설에 적용되는 5단 구성법은 ‘주의환기-과제제시<서론 부분>, 과제해명 - 해명의 구체화<본론 부분>와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3단 구성법은 논리적 배열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나 결론이나 중요한 사항이 제일 뒤에 나타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논문은 제목과 초록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제목은 결론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시켜 초록을 읽지 않아도 논문의 주요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초록도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압축하여 배경과 필요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본 연구가 ‘무엇을’ 다루는가를 제일 먼저 언급해야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2005년 2월호의 ‘실전에서 활용하기: 논문편’에서 다룰 예정임).

한편 글의 부분적인 미시적인 구상은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준수한다. 많이 쓰이는 규칙성은 다음과 같다.

- 〈1〉 원인-결과(귀납적 배열) / 결과-원인(연역적 배열)
- 〈2〉 문제-해결(귀납적 배열) / 해결-문제(연역적 배열)
- 〈3〉 비교와 대조
- 〈4〉 옹호와 비판
- 〈5〉 열거(동등가치를 가나다 순으로)
- 〈6〉 점층 :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미판식 배열)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두괄식 배열)

〈7〉 점층 : 단순 복잡 / 아는 것 모르는 것

실무자는 보고 시에 원인이나 문제를 앞에 두는데 반하여, 결재권자는 결과나 해결을 중요시하여 먼저 보고 받기를 원한다고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결재권자는 또, 중요한 사항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

### 논리 흐름을 개요도로 작성하기

글의 전체와 부분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구상이 끝나면 이를 개요도로 작성한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구상을 잘 하더라도 글을 써내려 가는 동안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거나 논리성을 잃고 헤맬 수도 있다. 또 글의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요도를 작성해야 한다. 개요도는 건물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개요는 핵심 단어만을 사용하는 방법과 문장 형식을 채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다음은 문장형 개요의 예이다.

주제문: 원자력은 추가 건설은 바람직한가?

서론 - 원자력의 이용 현황 과 미래 전망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 증가

본론

#### 1. 원자력의 필요성

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

1) 석유

2) 석탄

나. 대기 오염의 감소

1) 지구온난화 감소

2) 배기가스 없는 청정에너지

다. 경제성이 우월

라. 대체에너지의 한계

## 2. 원자력의 안전성

### 가. 원자력 사고

- 1) TMI
- 2) 체르노빌
- 3) 도카이무라

### 나. 원자력시설의 사고 확률

## 3.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

### 가. 환경단체 및 주역주민의 반핵 운동

### 나.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확보의 실패

결론 - 적정수의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

## ‘문단-문장-단어’의 구조를 갖추자

글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는 단어이다.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된다. 단어는 뜻을 나타내며 하나의 단어는 문맥에 따라 하나의 뜻을 가지는 일물일어(一物一語)의 법칙이 적용된다. 문장은 단편적인 생각을 나타내며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개념(idea)을 나타낸다. 문단은 중심생각을 나타내며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topic)를 나타낸다.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글을 쓸 때에는 중심생각이 담기는 문단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 개의 단어가 빠지거나 한 두 문장이 없어도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문단이 중심생각을 전하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 문단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문단을 글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문장론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문단의 구분이 없이 죽 써 내려가는 글쓰기는 고대소설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문장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향이 많은 일본어의 영향도 크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문단이 글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단은 형식적으로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한 문단 내에서 문장은 연속해서 적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문장이 새로운 행에서 시작한다. 이때 첫 칸을 비워 두는데 이것을 들여쓰기(indention)라고 한다. 우리글은 스페이스로 두 칸, 즉 글자로는 한 칸으로 하고, 영어는 4

6칸으로 한다. 그런데 요즈음은 전혀 비워두지 않는 문단도 많이 쓰이고 있다. 한 문단의 길이는 6문장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적당하다. 요즈음은 문단의 길이도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3 4문장을 한 문단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문단은 단락(Paragraph)이라고도 불린다.

## 문단은 소주제문과 뒷받침문장으로 구성한다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 아래 이루어진 큰 덩어리의 생각이라면 문단은 이를 이루는 작은 덩어리의 생각이다. 한 문단은 이러한 작은 덩어리의 중심생각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소주제문(topic sentence)과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개의 뒷받침문장(supporting sentences)들로 구성된다. 이를 문단의 완결성이라고 부르며, 주제문만 있고 뒷받침문장이 없으면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는 글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문단은 하나의 중심사상을 다루어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석탄연료의 고갈, 이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국, 일본 및 체르노빌 등의 원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세계의 원자력 연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문단의 문제점은 한 문단 안에 소주제가 두개이고, 주제문만 있고 뒷받침문장들이 없다는 것이다. 두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각 문단은 소주제문과 뒷받침문장들로 구성해야한다.)

⇒ 선진국은 원자력을 미래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소주제문)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화석연료는 머지않아 고갈~.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여~. 이에 대비하여 차세대 원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은~. 프랑스는~. (뒷받침문장들)



한편, 이들 나라의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 연구가 위기를 맞고 있다.(소주제문) TMI, 체르노빌, 도카이무라에서 핵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감정~, 원자력관련 연구비가 감소~.(뒷받침문장들)

소주제문은 문단의 내용을 압축한 중심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으로 글 쓰는 이의 의견이 집약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좋은 소주제문이 되려면 첫째,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 형태여야 한다. 둘째,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문의 하위 항목이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크면 문단 전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셋째, 간결하면서 흥미를 끌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소주제문이 문단에서 놓이는 위치에 따라 문단의 유형이 나누어진다.

두괄식 문단은 소주제문이 문단의 시작 부분에 놓이는 문단이다. 핵심 정보가 제일 먼저 제시되고 문단의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인다. 정보 소통에 강점을 가진 방법이라 사무적인 글은 두괄식 문단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보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대에 적합한 형식이기도 하다. 두괄식 문단은 문단의 첫 문장인 소주제문만 읽어도 그 문단의 핵심 사상을 파악할 수 있어 속독이 가능하다. 문단의 첫 문장을 읽고 내용을 알 수 있으면 그 다음 뒷받침문장들은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괄식 문단은 소주제문이 문단의 마지막에 놓이는 문단이다.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 후에 끝에 가서 핵심 정보를 제시한다. 읽는 사람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둘 수 있어 소설이나 수필에서 많이 활용한다.

양괄식 문단은 소주제문이 문단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문단이다. 소주제를 뚜렷이 강조해주고 싶을 때 활용하는 양식이다. 마지막 소주제문은 시작의 소주제문과 내용은 같더라도 표현양식은 달리 해야 한다. 소주제문이 중간에 위치하는 중괄식 문단이나 소주제문이 아예 없는 무괄식 문단은 논리성이 없는 가벼운 글에 적용되는 형식이다.

소주제문만 있고 뒷받침 문장이 없으면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는 글이 된다. 뒷받침 문장은 문단의 중심사상, 즉 소주제를 구체화, 합리화 또는 예시화하여 글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부여한다.

구체화 : 설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정의, 지정,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상설, 부연, 서사 및 묘사'의 방법으로 전개한다.

합리화 : 논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원인, 이유, 근거' 등을 밝힌다.

예시 :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 효과적으로 배열하기

중요한 사항을 첫 문단에서 먼저 설명하는 두괄식 배열이나 결과를 먼저 언급하고 원인이나 배경은 뒤에 설명하는 연역적 배열이 글의 형식에서 많이 쓰인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항이나 결과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신문의 보도기사는 이러한 배열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를 역피라미드형 배열이라고도 부른다. 뉴스의 핵심이 서두의 첫 문단에 요약 제시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보충 사실과 흥미 있는 세부사실이 뒤따른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첫 문단의 요약만으로 전체 기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AP통신사가 이 유행을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 백년이 넘도록 기사의 표준형태로 되어 있다.

〈1〉 정부는 한-미간의 현안인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과 관련해 예상사업비 51억7850만 달러의 3분의 2인 약 35억 달러를 분담키로 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책임을 지고 비용을 조달하도록 일본 등과 공조해 나가기로 최종 방침을 굳힌 것으로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대통령 비서실 업무인계 자료'에서 드러났다.(한겨레 98.1.14)

⇒ 정부는 한-미간의 현안인 경수로 건설비용을 총비용의 3분의 2인 약 35억 달러를 분담키로 했다. 예상사업비 51억 7850만 달러의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이 책임을 지고 일본 등과 공조해 나가기로 최종 방침을 굳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대

통명 비서실 업무인계 자료'에서 드러났다.

〈2〉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박사는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년간 10억 원의 연구비를 투여하여 간암 치료에 효과가 큰 방사성동위원소인 홀뮴을 개발하였다.

⇒ 원자로에서 나온 방사성동위원소인 홀뮴을 이용하여 간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길이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박정배박사는 지난 3년간 1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연구를 성공시켰다.

〈예문 1〉에서 앞 문장은 예전에 많이 쓰이던 형식으로 6하 원칙을 한 문장에 모두 넣어 의미 해석이 어렵고 장황하다. 요즈음에는 내용을 최소한 2 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문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그 다음 문장에는 그 다음 중요한 정보를 담는다. 마지막 문장에는 6하 원칙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정보를 기재한다. 〈예문 2〉는 원자력연구소가 보도자료로 낸 것을 신문이 고친 내용이다. 뉴스의 핵심이 제일 앞 문장에 나와 있다.

신문기사가 반드시 두괄식 배열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의 해설기사는 보도기사와는 달리 피라미드형 배열을 취하여 원인이나 배경 설명이 먼저 나오고 결론이나 중요한 사항이 뒤에 오게 한다. 이는 신문이 이미 아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거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뉴스와 해설은 배열 순서가 다른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문장의 연관성을 놓치지 마라

단편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은 따로 두지 않고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들을 한데 묶어서 문단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문장은 문단 안에서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엉뚱한 성격의 문장이 도중에 나타나면 따돌림을 받아 좋은 글이 되지 못한다. 문장이 따돌림을 받는지 여부를 알아보

려면 각 문장이 나타내는 단편적인 생각, 즉 개념(idea)을 적어보면 된다. 다음 예문을 읽어보고 각 문장이 나타내는 개념을 나열해 보자.

인간이 다양한 언어능력으로 대화하는 자질이 하등 동물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이다. 문자의 발명으로 시작된 지식이 축적되면서 인간문명이 발전되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것이 확실하다. 인터넷에는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의 정보량이 지금까지와 다른 규모로 넘쳐 나고 있다. 인터넷은 21세기의 경제와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에도 새로운 자료와 소식은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각 문장의 개념을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굳이 적어 본다면 인간의 언어 능력 - 문명 발전 - 인터넷 등장 - 시장 경제, 문화와 예술 정보량 증가 - 경제와 시장의 패러다임 - 쉬운 문장이 된다. 이들 개념만을 읽어보아도 뜻이 통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이 글이 좋은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일관적이지 못하고 연관성 없는 개념은 글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문단의 소주제와 관계없는 '시장, 경제, 문화 및 예술'을 과감히 삭제하고 두괄식으로 해서 글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정보화 시대에는 읽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일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인류 문명은 지식의 축적과 이를 기록하여 유통함으로써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예전에는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난해한 글도 시간을 두고 해석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키게 때문에 그만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

## 논리적 연결이 중요하다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탄탄한 구조물은 연결이 견고하다. 글도 마찬가지이다. 문장과 문장이 탄탄하게 연결되려면 문장의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이들을 문장 연결 장치인 접속어, 반복어 및 지시어로 묶어두어야 한다. 먼저 문장의 논리성을 보기로 한다. 문장은 그 자체가 논리적이고 뒷문장과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상대가 납득할 수 있다.

〈1〉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닙니다(독자는 다음 문장에서 원자력이 왜 비싼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함).

☞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천문학적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2〉 수돗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수돗물이 오염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화석연료는 자원의 한계성과 탄산가스 배출문제 등을 가지고 있어 원자력이 미래에는 주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력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

〈4〉 일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고속 증식로의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구체적 내용으로 전체 수정)

〈예문 1〉에서 보듯이 독자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 전개를 예측한다 (Readers do not simply read. They interpret). 〈예문 2〉는 수돗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

져서 시민 건강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수돗물의 오염자체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예문 3〉은 논리가 비약한 경우이다. 한쪽은 나쁜 면을, 다른 한쪽은 좋은 면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예문 4〉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대충 얼버무려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예이다.

### 문장 연결 장치 사용하기

다음은 문장 연결 장치를 보기로 하는데 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접속어로 연결하기, 반복어로 연결하기, 그리고 지시어로 연결하기이다. 첫째, 접속어는 문장의 신호 장치이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을 정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접속어만 보아도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기술자는 의사소통에 관심이 적다. 그러므로 ...

☞ 그러므로 글쓰기를 잘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접속어를 많이 쓰면 문장이 경박하여지므로 접속어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상(上)목수는 함부로 못을 쓰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소리를 직접 만들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전자기타를 샀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기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어 꽤 찬 사운드의 추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 (밑줄 친 부분 삭제)

둘째, 반복어로 연결할 때에는 문장 앞부분에 이미 알게 된 옛 정보를 두고 문장 뒷부분에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즉 앞 문장의 뒤에 있는 신정보를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서는 구정보로 받아 문장 앞부분에 두고 뒷부분에 다른 신정보를 제시하는 형태이다. 이를 문장의 ‘구정보-신정보 전개법’이라고 부른다. ‘끝말잇기’ 놀이가 구정보-신정보 반복 형태의 전형이다. 즉 ‘원숭이 엉덩이는 빨갳다 → 빨간 것은 사과 → 사과는 맛있다……’로 이어질 때, ‘빨갳다’는 첫 문장의 신정보가 다음 문장에서는 구정보가 되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구정보-신정보 전개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가 있다.

- (1) 끝말 연결하기 : 교양은 궁극에 있어서 개성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개성이란 일종의 치너지라고 생각한다. 치너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제초를 하고 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개발과 경작의 과정이 즉 교양이다. 그러기에 영어에선 개발이나 경작이 나를 매한가지 ‘칼췌어’라고 부른다.(교양의 정신, 최재서)
- (2) 명사화 연결하기 : 글을 요약하는 것은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다. 글 구조 분석 작업은 그 글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 부분들의 관계를 따져 보는 일이다.
- (3) 표현 바꾸어 연결하기 : 나는 컴퓨터 본체 이외에 준변기기도 샀다. 프린터는 최고급 기종을 선택했다.

셋째, ‘이, 그, 저’ 등의 지시어를 사용한다.

- (1) 남극의 빙산이 녹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 (2) 연구책임자는 성격이 꼼꼼하다. 그것의 지나쳐 ‘꽉 막혔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는 그 말에 개의치 않는다.

자기가 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남의 글도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좋은 글은 문단마다 소주제문이 있고 생각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접속어로 적절한 신호를 해주기 때문에 소주제문과 접속어만 읽어도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 ‘1문장, 1개념’의 원칙을 준수하자

문장에는 글 쓰는 사람의 단편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생각을 개념(idea)이라고 앞에서 불렀다. 한 개의 문장 속에 여러 개의 개념이 들어 있으면 읽는 사람이 그 개념을 모두 알아내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개념만을 담아야 한다는 ‘한 문장, 한 개념(one sentence, one idea)’ 원칙이 있다. 특히 신문기사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매우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원자력은 탄산가스에 의한 온실효과를 줄일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이며, 또한 발전 단가도 석유나 액화가스에 비하면 거의 반값에 해당하는 저렴한 에너지이다.  
☞ 에너지이다. 또한 (두 문장으로 분리)

## 완전한 문장 형태를 지키자

웅변에서는 뜻을 부리거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완결된 문장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실용문에는 ‘주어 + 서술어’ 형태의 평서문으로 문장의 완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장에 반드시 주어를 넣고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되게 해야 한다.

- (1)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지구온난화 및 기후이변, 오늘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기후이변 등 오늘 ~
- (2)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는 에너지안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 ~ 할지 모른다. ~ ☹

## 호 문 장 을 쓰 자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lec-writing@hanmail.net

문장이 겹문장으로 확장되어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글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면 읽는 사람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지 못해 비문이 되어 버린다. 글 잘 쓰는 사람이 한결 같이 강조하는 것이 ‘호문장(단문을 써라)’이다.

〈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헌법 전문)

☞ ~계승한다. ~공고히 한다. ~

〈2〉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어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나라이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나라이다.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예문 1〉은 헌법 전문이다. 총 340여 글자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긴 문장을 많이 썼지만, 요즈음은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예문 2〉는 밑줄 친 부분이 관형절로서 뒤에 오는 ‘나라’를 수식하는 안긴 문장(중문)이다. 두 개의 호문장으로 분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문장을 되도록 호문장으로 하여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짧은 것이 좋은 것일까. 영어는 한 문장에 최대한 16~20개의 단어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번의 숨으로 무리없이 읽을 수 있는 길이가 적당한 것이라는 얘기다. 한 줄 반 이상의 문장은 불합격이 되는 셈이다. 우리글도 신문의 경우, 한 문장 당 40~60자를 권고하고 있으니 영어와 비슷한

길이라고 하겠다. 문장이 짧아야 ‘주어 + 서술어’ 형태의 문장의 완결성이 유지되기 쉽다.

### 문장 안의 단어는 연관성을 유지하자

한 문장에서 의미의 연관성이 약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문장이 자연스러워 진다.

〈1〉 인간이 다양한 언어능력으로 대화하는 자질이 하등동물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이다.

☞ 인간은 다양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 동물과 구분된다.

〈2〉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다친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과잉 중복 투자의 시정과 구조 조정, 국제 경쟁력 향상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자신감이 사라지고,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 ~구제금융으로 경제기적을 이룬 자신감마저~

〈예문1〉에서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는데 구태여 ‘대화하는 자질’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면 족하지, 굳이 ‘하등동물’과 구분될 필요가 없다. 〈예문 2〉에서 구제금융과 구조조정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 ‘국제 경쟁력의 향상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자신감이 사라지고’는 뒤에서 살펴 볼 대등성과도 맞지 않아 어떻게 이런 글이 버젓이 인쇄까지 되어 나올 수 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 문장의 대등성에 유의하자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기 위해서는 문장의 형식을 통일하여야 한다. 이를 문장의 대등성(Parallel Construction)이라고 한다. 제품의 사용 설명서나 프레젠테이션에 자주 등장한다.

〈1〉 (사용설명서의 경우)

전원을 연결한다.

전원 스위치를 켜다.

안테나의 방향은 화질이 좋은 상태로 한다.

☞ 안테나의 방향을 화질이 좋은 상태에 맞추어 고정한다.

## 〈2〉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생명공학 기반기술확보를 위한 유전자 분석 연구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통한 정보산업육성

☞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

##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 사용하자

글쓰기는 단어부터 시작한다.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는 오직 하나이다. 근대문학사상 사실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프랑스의 소설가 플로베르(Flaubert, Gustave)는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인 일물일어(一物一語)의 원칙 아래서 작품을 썼다. 그러므로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정확한 단어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어휘력에서 나오므로 어휘력을 키우는 독서가 중요한 것이다.

〈1〉 어머니는 불교를 믿지만 나는 교회를 믿는다. ☞ 기독교를 ~.

〈2〉 교통사고로 차가 막혀 지각하였다. ☞ 길이 ~.

〈3〉 맡은 임무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 ~분 안에~.

〈4〉 젊었을 때 사람을 저축하자. ☞ ~ 좋은 친구를 사귀어 두자.

〈5〉 모든 일을 여유 있게 서둘러라. ☞ 어떤 일도 여유 있게 하자.

〈예문 1〉, 〈예문 2〉, 〈예문 3〉은 단순히 단어를 잘못 고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문 4〉와 〈예문 5〉는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여 올바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다.

우리말은 형용사의 뜻이 명사에 따라 변하지 않으나 영어는 매우 다양하게 바뀐다. 다음의 blue가 그 예이다. 명사에 따라 하나의 고유한 의미만을 가지는 '플로베르'의 법칙이 적용된다.

1. blue sky(푸른), 2. blue mood(우울한), 3. blue collar(노동자), 4. blue chip(우량주), 5. blue blood(명문), 6. blue movie(외설), 7. blue book(정부간행), 8. blue ribbon(우량품), 9. the Blue(노동당).

계약이나 외교 문서에서 단어의 중요성은 더욱 막중하다. 영어에서 '미안'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한다. 외국에서 도입한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기술자가 여러 번 오고 급기야는 새로운 기기로 대체까지 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최선을 다한 외국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심정적으로 미안하겠지만 영문 편지에는 '미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 동안 귀사가 제공한 여러 가지 지원에 감사하고 있기에 미안하지만 설비 파손에 대한 손해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문 편지라 가정) ☞ ~ 유감이지만 ~.

마찬가지 이유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통석의 염(痛惜の念)'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가면서 사과를 대신하고 있다. 책임과 배상 때문에 일본은 일제통치에 대하여 '사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 단어의 대등성에도 유의하자

문장에 대등성이 있는 것처럼 단어에도 대등성이 있다.

〈1〉 미국, 일본 및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일련의 핵 사고로 인하여... ☞ ~ 러시아 ~

〈2〉 제품의 탈색, 변형 및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교환이 됩니다. ☞ 제품이 탈색 또는 변형되거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1)에서 체르노빌은 구소련의 도시이기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국가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2)는 탈색이나 변형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과 발생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 ☞



##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위대한 사람일수록 말과 글이 간결하다. 로마의 카이사르(시이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 부하들에게 했던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이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짧은 승전보(勝戰報)는 유명한 말이다. 특히 심복 브루투스의 칼에 죽는 순간에도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저'였다. 그가 쓴 갈리아 전기는 간결하고 힘찬 글로 오늘날까지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 영국의 처칠도 이에 못지않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날 그가 한 연설은 '오늘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황제폐하만세였다. 미국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취임 연설은 133단어로 1분 남짓한 초대 워싱턴의 재임 연설이었다. 이에 반하여 가장 긴 연설은 9대 해리슨이었다. 취임식 날은 춥고 비가 내렸으나 그는 외부도 입지 않고 장장 8,443단어를 사용하여 1시간 이상이나 진행하였다. 그는 취임식 직후 폐렴에 걸려 30일 만에 사망했다. 가장 짧은 대통령 재임기록이다.

기술자가 사무적으로 쓰는 글은 감정에 호소하여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약도 그리듯이 '주요 사실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면 되고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첫회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원칙1; 약도의 방향: 읽는 사람을 고려한 글쓰기**

**원칙2; 약도의 길 구도: 논리적인 틀이 있는 글쓰기**

**원칙3; 약도의 단순 명쾌: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

이번 회에서는 원칙3;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약도는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려야 하듯이 글도 핵심 내용이 한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현대인은 바쁘고 취급하는 정보의 양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매체보다는 정보의 전달 능력이 탁월한 영상 매체를 선호한다. 문자 매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읽어야 할 글도 많다. 그러므로 글을 아주 선택적으로 읽는다. 시각적으로 조금만 보기가 어렵거나,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장황한 글은 금방 외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한 글만이 살아남는다.

### 핵심을 짧게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연구소(NRL : National Research Lab)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연구소로 지정이 되면 1차로 3년간 최대 9억 원까지 연구비를 지원 받으며 3차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이 연구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대학교에서 환경 분야의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평가를 앞두고 나에게 자문을 구해 왔다. 나는 2차 평가에서 발표할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선 분량을 줄일 것을 주문하였다.

핵심만 발표하여 발표시간을 짧게 하라. 평가가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6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녁 8시를 넘기게 된다. 한 사람에게 10분씩 발표기회가 주어지지만, 발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10분을 넘기게 되고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면 시간을 많이 초과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평가위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배도 고프고, 저녁 약속을 친구와 하였다면 시계를 자주 보게 된다. 따라서 발표를 짧게 해야 한다. 발표를 듣는 사람은 처음 3분과 마지막 1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차피 딴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발표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연구 내용이 쉽게 이해되면 평가위원은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20개 기관이 통과한 1차 심사에서 13위를 차지했던 경북대학교는 2차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 제목과 소제목에 핵심내용을 담자

핵심내용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한다. 신문 기사의 경우에 제목과 부제만 보아도 내용의 절반은 짐작할 수가 있고 첫 문단을 읽으면 내용의 80% 정도까지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나 연구논문을 쓸 때, 제목과 소제목에 핵심내용을 담아, 읽는 사람이 이것만 보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보고 목적 목적; 본관 건물 외벽에 심한 균열

#### 〈2〉 환경오염의 측정 및 제어를 위한 환경가스의 Dynamic Monitoring System 신기술개발 도심 대기오염의 실시간 측정과 장비 소형화 기술 개발

〈1〉에서는 보고문의 형식에 맞게 보고의 목적을 우선 일목요연하게 적었다. 목적만 읽어도 이것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짐작할 수 있다. 〈2〉는 제목이 구체성을 띄지 않아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풀어서 제목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 KISS의 법칙

위대한 연설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원칙을 정리한 말이 'KISS'이다. 이는 'Keep It Simple, Stupid(단순하게,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도 알아듣게 하라)'는 말을 축약한 것이다. 세계적 지도자들의 연설에는 진부한 표현, 과장된 문장, 전문 용어, 유행어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평이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이다(래리 킹의 《대화의 법칙》중에서).

KISS의 마지막 단어를 'Stupid' 대신에 'Short'를 써서 간결을 강조하기도 한다. 간결한 연설로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압권이다.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고 쉬운 말을 써서 이보다 감동적인 연설은 없다고 한다. 미국 국민이면 누구나 암송하는 이 연설문은 불과 266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링컨에 앞서 두 시간 연설했던 웅변가 에드워드 에버렛(Edward Everett)이 '나의 두 시간 연설이 당신의 2분 연설처럼 그렇게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탄식했다는 일화도 있다.

간결은 지혜의 정신이다(Brevity is the soul of wit) - 셰익스피어

보고서는 한 장으로 족하다. 더 긴 것은 비서가 곧장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다(If it is just one page, I promise to read it with attention. If it is longer, my secretary will put it straight into a wastepaper basket) - 처칠

사회 어느 분야에나 프로와 아마추어의 세계가 있다. 말을 통한 이들의 구분은 간결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언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글도 말과 마찬가지로 간결함을 으뜸으로 친다. 글을 쓸 때의 교훈으로 '버리는 데 용감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지면이 명동 땅값보다 비싼 신문의 경우, 기사는 항상 압축된 형태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간결은 또한 겸손과도 통한다. 자신의 업적을 절제해서 표현할수록 힘 있는 글이 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과 겸손을 염두에 두면 진부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쓸 수가 없다.

기술자나 과학자는 글을 간결하게 쓰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쓴 글은 무조건 반 이상 줄여야 한다. 다음의 예와 같이 글의 양을 반으로 압축하여도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1〉 고압증기 배관은 발전소의 증기발생 장치와 터빈 사이를 연결해 주는 주요계통으로서, 발전소의 정상상태 운전 시 내부유체의 압력 및 속도 변동에 의해 항상 진동<유체유발진동> 현상을 겪게 된다. 이때 그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배관 자체를 포함하여 배관의 지지물, 주변기기 등에 심각한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플랜트 고압증기배관의 진동증가 원인 파악 및 진동감소를 위한 경험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내의 00발전소에서 고압증기 배관의 진동 준위가 매우 높아져 배관지지물의 일부 파손 및 열화현상이 관찰되었다.

☞ 고압증기 배관은 터빈에 증기를 공급할 때 증기압력과 속도의 변동에 의해 진동하게 된다. 진동이 커지면 배관은 물론이고 주변기기까지 파손되거나 열화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국내 00발전소에서 이런 현상이 일부 발견되어 본 연구팀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





## 형용사와 부사, 비유가 적을수록 좋은 글이다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간결한 글을 쓰자면 명사나 동사를 많이 쓰고 이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필수로 줄여야 한다. 형용사와 부사는 문장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군더더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어와 술어만으로써 실체를 진실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은 글이 된다.

〈1〉 원전의 내진 설계 시 역사적 지진에 대한 조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 ~ 필수적이다.

〈2〉 ‘너 오늘 참 예쁘다’ 그가 한껏 분위기를 잡아 말했다.

☞ ‘너 오늘 차암 예쁘다’ 그가 속삭였다.

‘진실을 표현하는데 형용사와 부사는 얼마나 차이가 많으며 과장되기 쉬운가... 미문(美文)이란 사치스런 옷에 불과하다’고 ‘가을 금관’을 쓴 정목일은 지적한다.

### 산뜻한 글이 좋다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첫 인상이다. 글에서의 첫 인상은 산뜻함인데 글자 크기, 여백 및 사용 색깔의 수와 관계가 많다.

글자의 크기는 읽는 사람의 나이에 비례해야 한다. 상사는 대부분 잔글씨를 잘 보지 못함으로 다소 큰 글씨로 써야 한다. 중요한 단어를 진하게 표시하는 것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오히려 산만하게 보일 수 있다. 영문의 경우에도 강조 시에 대문자를 사용하지만 대문자를 남발하면 역효과가 난다.

한 장의 보고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읽는 사람은 보기도 전에 질려버린다. 또, 행간의 간격도 너무 좁지 않도록 한다. 상하와 좌우의 여백도 넉넉하게 둔다. 어쨌든, 시각적으로 읽기 불편한 글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색깔의 사용도 절제를 요한다. 많은 색깔은 오히려 산만

하게 보일 수 있다. 맥킨지 컨설팅회사는 발표를 할 때 2가지 정도의 색채만을 권장하고 있고 많아도 3가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Page Proposal’의 저자는 꼭 기본 검정 색만을 쓰도록 권장한다. 중요한 사항은 진하게 나타내고 참고사항은 회색 글씨체로 처리한다.

신문은 지면 편집에 매우 신경을 쓴다. 신문의 첫인상이 어떤가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편집부가 정치부나 사회부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책의 경우에도 편집과 표지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 어려운 내용은 그림이나 도표 활용

사람은 시각을 통하여 사물을 빠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한 장의 그림이 수만 마디의 단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옮겨가면서 전달하는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보다 되도록 영상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일본에서 어려운 불교 내용을 대중에게 쉽게 접근시키기 위해 만화로 제작하는 것이나 각종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반드시 그림을 포함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도표는 복잡한 상관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크기를 서로 비교하거나 시간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여 가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기술자와 과학자가 자주 활용해왔다.

### 모호한 것은 죄악이다

간결한 문체라도 의미가 모호하면 읽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글이 가지는 논리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간결을 위해 정확한 의미 전달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수식어의 위치가 피수식어에 접근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도 방지해야 한다. 모호함은 상대를 더 헛갈리게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 구조적으로 이중성을 띠

문장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1〉 당신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2〉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는 범인을 쫓아갔다.  
(누가 소리를 지르나?)

〈1〉은 사랑한다는 것인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듣는 사람을 짜증스럽게 만든다. 지극히 외교적인 인사인데 외교에서는 이러한 인사가 필요하다. 국가 간의 곤란한 문제는 되도록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2〉는 구조적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어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동 떨어져 있는 문장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하도 많이 써서 관습적이 된 것도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뜻이 이상해진다.

〈1〉 온통 사회가 범죄로 가득 차 있다

☞ 사회가 온통 범죄로~

〈2〉 콜치 아픈 회사 내의 인간관계

☞ 회사 내의 콜치 아픈 인간관계

〈3〉 신임 노조 여간사 취임

☞ 노조 신임 여간사 ~

〈4〉 큰직원식당, 작은직원식당

☞ 직원용 큰식당, 직원용 작은식당

〈1〉의 경우에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떨어져 있어도 문맥상 멀리 있는 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2〉와 〈3〉은 수식어가 잘못 위치하고 있어 뜻이 전혀 다른 표현이다. ‘콜치 아픈’ 것은 회사가 아니고 인간관계이고, ‘신임 노조’가 아니고 ‘신임 여간사’가 되어야 올바른 표현이다. 특히 〈4〉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 지하 식당에 붙인 이름이다. ‘의원식당’이 있으니 ‘직원식당’을 구분해서 불러야겠지만 ‘큰직원식당’ 보다는 ‘직원용 큰식당’이 자연스럽다.

##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하자

우리글은 접속어뿐만이 아니라 조사도 문장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번에 서운하다’는 한번에 국한되지만 ‘이번에도 서운하다’는 여러 번 연속해서 그렇다는 뜻으로 조사 하나에 문장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예로 ‘달이 밝다’는 보름이어서 달 자체가 밝은 것을 지칭하지만 ‘달은 밝다’는 ‘은’이 비교격 조사이기 때문에 달은 밝은데 이와 비교하여 별은 어둡거나 골목길이 어두운 것을 암시하는 의미가 된다.

## 개략적인 표현대신 구체적인 수치 제시

기술문서에서 개략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구체성을 결여한 완곡한 표현은 의사전달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측정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 종전의 측정에서는 표준오차가 5%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0.5%였다.

〈2〉 이 약의 부작용으로 간혹 입안이 마르거나 아주 드물게는 두드러기가 날 수 있습니다.

☞ 5% 내외로 ~ 0.1% 이내로 ~.

연구의 내용이 형편없는 것일수록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다양한 견해를 연대순으로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남의 논문을 인용만 하는 경우이고, 또 ‘이것은 향후 과제로 한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모자라 할 수 없었거나 할 수 있어도 다음 프로젝트로 남겨둔 인상을 주게 된다.

종전에는 〈2〉의 예문같이 개략적인 표시를 약품 설명서에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제품 책임법(PL법)이 발효되어 구체성을 결여한 표시로 제품 사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명칭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사용하자

임재훈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의 생각을 혼들어 놓을 때가 많다.

전등의 높이를 변화시키면 불빛 주위에 모여드는 곤충의 수는 증가하였다. 한편 조명기구의 방향은 곤충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의 예문을 보자. 불빛에 모여드는 나방 연구를 기술하면서 관측자는 전등, 불빛 및 조명기구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명칭은 최대한 일관되게 적어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중량천 오염문제를 다루면서 하천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칭간의 관계를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좋은 글이 아니다. 명칭은 가장 구체적인 것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함으로 '환경오염' 보다는 '수질오염' → '하천오염' → '중량천오염'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과 특정 단어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늘날 공해문제는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 오늘날 공해는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명칭이 아니고 동사, 형용사 및 부사일 경우에는 다양한 것이 좋다. 한 가지 단어를 중복하여 사용하면 금방 싫증이 나기 때문이다.

〈1〉 말했다 → 설명했다, 주장했다, 밝혔다, 전했다, 거듭했다 등

〈2〉 기술개발 제도 확립 → 수립, 개선, 확충, 보완 등

'말했다'를 반복하기 보다는 설명했다, 주장했다, 밝혔다, 전했다, 거듭했다 등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정부가 기술개발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반복하기 보다는 기술개발 제도를 수립, 개선, 확충 또는 보완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 괄호 사용시 주의할 점

글을 쓸 때, 보완해서 설명할 것이 나오면 별 생각 없이 그 내용을 괄호 안에 넣는 경우가 많다. 괄호는 단어 설명과 같은 보완설명에 국한하여야 한다.

일기예보에도 카오스 이론(Chaos Theory; 수많은 인자가 영향을 미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계 이론으로 북경에서 나비가 일으킨 날개 짓이 뉴욕의 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예)이 적용된다.

괄호 사용이 가장 잘못된 것은 반대되는 개념을 편의상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이나 본문에 포함될 내용을 괄호 안에 넣는 것이다.

〈1〉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석유의 반밖에 되지 않는 값싼 에너지이다(반핵단체는 원전에서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비용과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전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가스의 배출이 없다.

☞ () 부분 삭제

〈2〉 진동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다각도(구조진동, 와음기진동, 음향공진 등)로 조사하였다. 먼저 구조진동은 속도성분의 최대치가 9.62 cm/sec로서 허용값(10.54

cm/sec)에 근접했다.

☞ 진동 증가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구조진동, 와유기진동 및 유향공진을 측정하였다. ~허용값인 10.54cm/sec~.

〈1〉의 경우처럼 반대의견을 괄호 안에 넣는 것은 정말 삼가야 한다. 세상일은 보기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문장마다 반대 의견을 첨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글 쓰는 이는 뚜렷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글을 써야 한다. 〈2〉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다각도’가 아니고 ‘구조진동 등’이다. 중요한 정보를 괄호 안에 넣어 보완설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한편 ‘허용값’ 뒤에 괄호를 사용한 것은 보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괄호 사용을 함부로 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는 없는 편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 안 된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글의 품위를 훼손한다. ‘역전 앞’과 같은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침전물은 청색인 색채를 띤다. → 청색을
- 〈2〉 3kg 무게의 재료가 필요하다. → 3Kg의
- 〈3〉 똑같은 실험조건을 또 다시 재연하는 것은 쉽지 않다. → ~ 재연

### 진부(Cliche')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삼가자

보고문에서 진부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금물이다. 이러한 글은 글 쓰는 이의 진실성을 손상시키기 쉬우며, 자기가 고생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필요 없는 것을 넣을수록 힘없는 글이 되는 것을 명심하자.

- 〈1〉 침전물은 가을 하늘같이 투명한 청색을 띠었다. → ~ 맑은
- 〈2〉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공장이 쓰레기 하치장 같다. → ~ 지저분하게 보인다.

### ‘의’의 남용을 자제하자

100 여년 전만 해도 우리말에는 ‘의’가 없었다. 일본어의 영향으로 이제는 우리글에 너무 많이 ‘의’가 들어간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은 ‘내가 살던...’이 바른 글이다. 우리글은 ‘의’를 빼도 어색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문장을 간결하게 압축하다 보면 명사만 여러 개 나열하거나 ‘의’를 명사 사이에 집어넣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문장 형태로 바꾸면 부드러운 글이 된다.

- 〈1〉 효과적인 글쓰기의 방법은 무엇인가 →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
- 〈2〉 이공계기피현상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공계의 기피현상개선방안  
이공계기피현상의 개선방안은 →  
이공계의 기피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은 →  
~ 이공계의 기피현상의 개선의 방안은 “

### 복수의 남용도 자제하자

우리글은 영어와는 달리 복수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영어식 표현으로 문장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한다.

- 〈1〉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이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  
→ ~ 국민의 → ~ 선진국에 ~

### 긍정문을 사용하자

때로는 강조를 위해 부정문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표현은 글을 혼란스럽게 하기 십상이다. 또, 쓸데없이 글의 길이만 늘이는 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긍정문을 사용해 글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 〈1〉 이 실험은 성공할 수 없었다. → ~ 실패했다.
- 〈2〉 피동문을 쓰지 말자. → ~ 능동문을 쓰자. Ⓢ

(이로써 기술글쓰기(Technical Writing)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끝을 맺는다. 다음부터는 실전이다)

# 좀 체 읽기 어려운 발표 ( 프리젠테이션 ) 이야기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지난번 글에서 Technical Writing(TW)을 ‘주요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쓰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발표도 똑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글쓰기이든 발표이든 핵심은 ‘무엇을’과 ‘어떻게’이다. 즉 ‘주요내용’이 ‘무엇을’에 해당하고 ‘알기 쉽고 간결하게’가 ‘어떻게’이다. 발표의 경우에 인용되는 격언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표내용인 ‘구슬’은 ‘무엇을’에 해당하고 전달방법인 ‘꿰는’은 ‘어떻게’이다.

## 1. 주요내용은 듣는 사람 위주로 한다

구슬인 발표내용이 꿰는 전달방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돌맹이를 꿰어 보았자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구슬이 좋은 것일까. TW의 ‘주요내용’이 철저하게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인듯이 발표에도 듣는 사람을 위주로 판단하여야 한다.

듣는 사람이 꼭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전달이 미흡해도 지장이 없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 병을 앓아 컴퓨터로 합성하는 전자음으로 강연을 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통상 발표하는 내용은 상대가 꼭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겠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표가 그래도 쉬운 편이지만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프로젝트를 따는 발표라면 이야기는 훨씬 어려워진다. 상대를 설득할 필요성이 커질수록 듣는 사람이 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많은 발표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예로서 회사(조건이 까다로운 민간회사를 대상)내에서 연구용 기자재를 구매할 때 연구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회사를 설득한다. 해당 기자재의 우월성, 생산성 향상 등의 기여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경영진이 듣고 싶은 내용은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이다. 그것도 ‘꼭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회사는 절박한 이유가 생길 때까지 결정을 미룬다.

## 듣는 사람을 분석하라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청중은 대학 2학년 정도의 지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연구실에서 동료와 늘 사용하는 전문용어와 약어로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면 참석자는 알아 듣지 못한다. 그렇다고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하면 참석자는 금방 외면한다.

회사에서 제안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할 때에는 최고 결정권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최고 결정권자가 관심을 가지든 분야나 평소에 가지는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한 사전 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내용을 중시하고 형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형식까지도 깔끔하게 다듬은 보고를 조직문화가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선이 굵고 간단명료한 보고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세하고 세밀한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발표 초안을 만들어 보면 상사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내어 놓게 마련이다. 직속상관의 의견에 따라 한껏 고쳐 놓았는데 그 다음 상관은 원위치하게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일일이 따라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상한다. 듣는 사람, 그것도 최고 결정권자에게 초점을 옮기면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에는 심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심의회는 여러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채택하므로 결정권자가 일정치 않다. 요즘은 전문분야가 워낙 세분되어 자기 분야를 아는 심사위원이 10명중 2명 정도가 고작이다. 전문분야가 아주 독특한 때에는 이들 2명의 발언권이 커져 채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어느 정도 아는

분야이면 8명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은 세부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알기 쉽게 설명한다

‘프로’ 일수록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가 발표 내용을 자기가 잘 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아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어도 다른 사람이 따라 오지 못할 만큼 자신감이 있다. 또 쉬운 말로 알기 쉽게 해도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청중의 수준과 관심에 맞추어 ‘의사소통기술’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 엉터리일수록, 사기성이 많을수록 어렵게, 모호하게, 양이 많게 해서 듣는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글쓴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4년 반을 근무한 적이 있다. 비엔나가 음악의 도시라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 음악 책도 사보고 비엔나에 유학 온 음악 교수에게도 물어 보았으나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저장 ‘주빈메타’가 TV에 나와 클래식 음악에 대해 100분짜리 교양 강좌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쉬울 수가 없었다. 글쓴이는 지금도 클래식 음악의 80%는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듣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제 하나를 잡아, 논리를 정연하게 해서, 담백한 화면에 담아 내야한다. 당당한 태도로 자신 있게, 시선은 청중에 두면서 목소리에 강약을 담아 한편의 스토리를 연출해 낸다.

## 하나의 주제에 집중한다

설득하는 주제는 하나이어야 한다. 주제가 둘 이상이면 청중은 실컷 들어도 돌아서면 자기가 무엇을 들었는지 모른다. 시종일관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야한다. 주제를 정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범위를 크게 잡는 버릇이 있다. 이렇게 되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제를 잡아야한다.

글쓴이는 ‘대기환경오염 가스의 측정’이라는 제목의 연구신청서를 검토한 적이 있다. 연구 필요성을 읽어보았는데, ‘남극 얼음이 녹아내리고 산성비로 핀란드 호수의 반

이 물고기가 살지 못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연구과제가 전 지구적이고 국제적인 것이구나 하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도심 차량 배기가스 측정’이었다. 이처럼 막연하고 포괄적인 주제는 발표의 명확성이나 의도를 흐리게 한다.

발표하는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주제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한정해야 한다. ‘환경오염’은 주제가 너무 넓다. 이보다는 ‘수질오염’이 보다 좁은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중랑천 오염’이라고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좁혀서 구체성을 갖추어 나가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빔을 이용한 중랑천의 염색폐수 저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환경오염 → 수질오염 → 중랑천 오염 → 중랑천의 공장폐수 오염 → 중랑천의 염색 폐수 오염 → 중랑천의 염색폐수 저감 대책 → 전자빔을 이용한 중랑천의 염색폐수 저감

## 설득에는 순서와 논리가 있다

도입부에서 상대방부터 강한 관심과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를 제안하게 되는 이유, 즉 문제점을 정확히 규정한다. 주제 및 제안 이유만으로 다음에 전개될 내용과 결론을 암시할 수 있어야한다. 설득에는 논리 못지않게 신뢰가 중요한데 도입부에서 신뢰가 결정된다. 발표를 듣는 의사 결정권자는 도입부에서 발표자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도입부에서 특히 요점을 명확하고 자신 있게 전달한다. 이 부분을 길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전개부에서는 설득의 논리가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이 논리가 만만치 않다. 맥킨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ogical Think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한 책이 ‘로지컬 씽킹(일빛사)’이다. 일본책을 번역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지만 행간을 음미하는 다소 힘겨운 ‘수행’을 거치면 논리 전개에 어느 정도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도’의 경지를 여기서 설명할 길은 없으나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맥킨지의 ‘Logical Thinking’

결론의 근거가 충분하여야 한다. 결론은 논리의 귀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내어 놓으면 안 된다. 결론의 근거가 충분하더라도 그 근거가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가 가정에 기반을 둔다면 그 진실성이 의심 받는다. 또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 아닌 경우에는 설득력을 상실한다. ‘우리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강하는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라는 추진방법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또 논리에 명백한 중복, 누락 및 착오가 있거나 논리의 비약이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논리의 중복, 누락 및 착오를 막는 방법은 ‘MECE(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이다. 즉 ‘상호 중복 없이, 그럼에도 전체 누락 없이’이다. 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 있다.

비용 ; 효과 (손실 ; 이득)

강점 ; 약점 (기회 ; 위협, 내부역량 ; 외부환경)

단기 ; 중기 ; 장기 (과거 ; 현재 ; 미래)

마케팅의 4P(Product ; Price ; Place ; Promotion)

한편 논리의 비약을 막는 방법은 ‘Why So / So What’이다. 우리말로 하면 ‘왜 그런데 /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이다. 즉 논리의 앞 단계가 부족한 것은 ‘왜 그런데’에 대한 충분한 답으로 해결을 하고, 논리의 뒤 단계가 부족한 것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부에서는 의사결정 권자의 호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야 한다. 세상의 일은 논리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논리 이상의 것이 작용한다. 그것이 심리이다. 보고 내용은 흠 잡을 수는 없으나 왠지 동조할 기분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고 받는 사람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보고자의 의견이 마치 자기의 의견인 것처럼 느끼도록 해야 성공한 발표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고 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다. ‘프로’는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한다. 결정권자를 불쾌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이 보다 한 수 높은 ‘최고수’는 협상전술도 활용한다. 자신이 있으면 협박까지 할 수 있다. 때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의견을 대폭 양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변신도 필요하다. 발표는 단순한 내용 전달이 아니고 설득을 위한 고도의 심리 전이기에 협상 기술까지 필요한 것이다. 어느 책도 이러한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저 ‘프로’는 ‘감’으로 한다.

## 파워포인트(PT)로 담백하게 담아낸다

발표는 PT를 쓴다. 전달력이 강력하다. 주의할 점은 효과가 좋은 만큼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도구일수록 절제해서 사용해야 빛이 난다. 이를 위해 PT의 해악에 대한 비판에 먼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PT가 부패한다

Power Corrupts (권력은 부패한다).

PowerPoint Corrupts Absolutely (PT는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예일 대학교의 에드워드 터프트(Edward R. Tufte)교수는 PT를 격렬하게 비난한다. PT의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며 상업주의적인 폭군처럼 듣는 이를 지배하여 스타린이나 텔레비전의 해악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에서는 현란한 PT가 범람하여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다소 복잡한 통계 자료도 한 장의 도표로 표시하여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지만 PT는 이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장으로 발표해야 할 숙제도 몇 장의 클립아트와 단어로 해결한다. 이러니 오죽하면 첩판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온다.

진한 화장은 천박하다. 색채까지 원색이면 싸구려 냄새

가 난다. 한 장의 화면에는 하나의 중심생각(Topic)만을 담되 8줄 이내로 한다.

**색깔;** 원색의 사용을 자제한다. 색채의 종류는 맥킨지는 2가지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많아도 3가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보고가 무게를 더 할수록 색채의 수를 줄인다. '1 Page Proposal'의 저자는 꼭 기본 검정 색만을 쓰도록 권장한다. 중요한 부분은 서너 군데만 짙게(Bold) 표시하고 참고 사항은 회색 글씨로 처리한다.

**한 장면, 한 중심생각의 원칙;** 글을 쓸 때에 한 문단, 한 중심생각(One Paragraph, one topic)의 원칙이 있다. 이와 같이 발표에도 한 장면에 한 중심생각(One slide, one topic)만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대하여 설명하는 경우에 한 장면에는 가격에 대해서, 다른 한 장면에는 성능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성능과 가격을 같은 장면에서 다루면 발표가 집중력을 잃게 된다.

**한 장에는 8\*8 법칙;** 한 장의 화면에 많은 정보를 담지 않아야 한다. 8줄 정도가 적당하다. 또 한 줄에는 8단어로 해서 8\*8의 법칙을 준수한다. 이래야 화면을 보는 사람의 가독성을 높이고 발표하는 시간도 한 장에 1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 발표자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같은 내용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발표자의 전문성이 듣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발표 내용은 완벽하게 자신이 잘 아는 것이라야 한다. 여기에다 발표자의 자신감, 열정 및 태도 등도 듣는 사람의 호의를 이끌어낸다.


발표에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발표자는 떨리게 마련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눈물겨운 연습뿐이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미국인들은 우리가 보기에 심하다 할 정도로 연습을 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수많은 발표와 토론과정을 거쳐 기본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앞두고 연습을 반복한다.

**자세;** 두 다리를 약간 벌려 안정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 단정한 외모에 복장은 반드시 청중보다 나은 것을 택한다.

**목소리;**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여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다소 큰소리로 자연스럽게 말한다. 단조로운 목소리는 가장 금물이다. 주요한 내용에는 목소리를 높이면 서 느리게 진행한다.

**신체움직임;** 손 처리가 가장 어렵다. 다소곳이 양손을 앞으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나쁘다(영어로 Adam's Leaf이라한다.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잎과 같다는 것이다). 한손은 포인터를, 한손은 발표 자료를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스처는 손으로 시작해서 몸 전체로 옮겨 가는 것이 좋다.

**눈접촉;** 화면에 눈을 고정하여 읽어 가는 것은 최악의 발표다. 시선의 90% 이상은 청중과 눈접촉을 해야 한다. 청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발표에 반영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청중은 자기에게 시선이 오면 발표에 집중하게 된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면서 U자나 N자 형태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기면 청중 전체의 관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한사람, 한사람과 시선을 맞추며, 한사람에게 하나의 개념만을 전달한다. 글을 쓸 때, 한 문장은 하나의 개념(Idea)만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최고 결정권자에게는 처음과 마지막에 시선을 집중한다. 본문에서 자주 최고 결정권자를 보면 자칫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발표자의 자신감에 손상을 입힌다. 결정적인 사항은 발표자가 눈빛으로 호소하되 이때 시선은 최고 경영자에게 향한다.

**나쁜 버릇 교정;** 사람마다 나쁜 버릇이 있다. 고개를 자주 비틀거나 입술을 깨무는 사람이 있다. '에--', '그러니까'를 연발하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어지럽게 돌리기도 한다. 연습 시에 비디오를 찍어 보면 이러한 악습을 잘 알 수 있다. 



## 좀체 읽기 어려운 발표 (프리젠테이션) 이야기 (2)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 3. 간결하게 한다

위대한 연설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원칙을 정리한 말이 'KISS'이다. 이는 "Keep It Simple, Stupid(단순하게,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도 알아듣게 하라)"를 축약한 것이다. 세계적 지도자들의 연설에는 진부한 표현, 과장된 문장, 전문 용어, 유행어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평이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이다(래리 킹의 《대화의 법칙》중에서).

KISS의 마지막 단어를 'Stupid' 대신에 'Short'를 써서 간결을 강조하기도 한다. 간결한 연설로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압권이다.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고 쉬운 말을 써서 이보다 감동적인 연설은 없다고 한다. 미국 국민이면 누구나 암송하는 이 연설문은 불과 266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링컨에 앞서 두 시간 연설했던 웅변가 에드워드 에버렛(Edward Everett)이 '나의 두 시간 연설이 당신의 2분 연설처럼 그렇게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탄식했다는 일화도 있다.

간결은 지혜의 정신이다 <Brevity is the soul of wit> - 셰익스피어

보고서는 한 장으로 족하다. 더 긴 것은 비서가 당장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다

<If it is just one page, I promise to read it with attention. If it is longer, my secretary will put it straight into a wastepaper basket> - 처칠

사회 어느 분야에나 프로와 아마추어의 세계가 있다. 말을 통한 이들의 구분은 간결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언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 발표는 짧게 해라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연구소(NRL : National Research Lab)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연구소로 지정되면 1차로 3년간 최대 9억 원까지 연구비를 지원 받으며 3차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과 민간 연구소에서 이 연구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대학교에서 환경 분야의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평가를 앞두고 나에게 자문을 구해 왔다. 나는 2차 평가에서 발표할 내용을 살펴보면 중, 우선 분량이 너무 많아 다음과 같이 지도했다.

발표를 짧게 하라. 평가가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6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녁 8시를 넘기게 된다. 한 사람에게 10분씩 발표기회가 주어지지만, 발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10분을 넘기게 되고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면 시간을 많이 초과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평가위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배도 고프고, 저녁 약속을 친구와 하였다면 시계를 자주 보게 된다. 발표하는 전문 분야가 자기와 다르다면 발표자의 요령부득에 화까지 치민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평가위원의 대다수가 발표자의 전문분야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표를 짧게 해야 한다. 발표를 듣는 사람은 처음 3분과 마지막 1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차피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발표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연구 내용이 쉽게 이해되면 평가위원은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경북대학교는 5분 발표를 하였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20개 기관이 통과한 1차 심사에서 13위를 차지했던 경북대학교는 2차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 청중이 가장 좋아하는 것- 짧은 것

발표 듣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짧게 해달라는 것이다. 듣는 사람은 모두 바쁘고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노동을 하는 미국인이 신문, 잡지, 방송, 책, 인터넷 및 대화에서 얻는 메시지가 하루 평균 24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메시지를 듣고 현대인은 신속히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2400개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시간을 끌지 말자. 들어보니 별 것도 아닌데 시간만 끌면 설득은커녕 듣는 사람의 화만 돋우는 셈이 된다. 듣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돈 내고 받는 수업도 휴강이라면 학생들이 환호한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무심함으로 듣는 사람이 어떤 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발표자는 열심히 설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발표에 집중하는 시간은 처음 3분이다. 3분이 지나면 금방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해도 전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시에 발표 시간을 3분 이내로 제한하는 회사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는 '3분 발표' 연구회를 적극 장려한다. '3분 발표'를 해보면 3분은 이외로 긴 시간이다. TV광고가 20초 내외이지만 많은 핵심 정보를 전한다. 발표자는 3분에 TV광고 6개 이상을 할 수 있다.

## 4. '프로' 기법들

발표 프로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기법들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 비상사태에 대한 순발력

컨설팅회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 때 나름대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객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항상 바쁘기 때문에 발표가 시작되려는 순간 최고경영자가 급한 연락을 받고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 이때 그 경영자가 짧은 시간 안에 컨설팅 내용을 알고 싶어

하면 발표자가 경영자와 같이 걸어가면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시간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 발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 시각의 힘을 이용한다

핵심 내용이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다. 시각은 청각 보다 12배 정도의 힘을 발휘함으로 시각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되 지나치면 안 된다.

청중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한다. 청중은 이미 '결론'이라고 쓰여진 장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굳이 말 할 필요가 없다. '결론입니다' 또는 '결론은'으로 충분하다.

### 생각의 속도를 따라 잡는다

말은 1분에 125개의 단어를 할 수 있으나, 머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4 ~ 5 배의 단어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시각물 자체가 너무 단순하거나, 장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기만 한다면 청중은 금방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반대로 내용이 복잡하거나 논리 정연하지 못해도 청중은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간에 의미를 부여하여 긴장감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행간에 의미를 숨겨 놓으라는 뜻은 아니다.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사항은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라는 의미이다.

생각의 흐름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화면에 없는 사항을 발표자가 들고 나오는 것이다. 질문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새로운 사항을 말로 등장 시켜서는 안 된다.

### 설득의 원리를 질문에 활용하자


설득을 당하는 데는 이성(Logos)이 10 %, 연민(Pathos)이 30%, 감성(Ethos)이 60% 작용한다고 한다. 이성은 논리적으로 사안을 납득할 수 있게 함으로

설득의 기본요소이다. 그러나 워낙 당연한 것이다 보니 중요도는 낮다. 설득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연민이고 감성이다.

연민은 서로 감정을 함께 함으로 논리적인 설득보다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한다. 감정을 함께 하려면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낫다.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 것이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2배나 많이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기만 해도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도 듣기의 힘이다. 그러므로 경청자가 진정한 설득자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청의 힘을 질문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 질문자의 대부분이 발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로 질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발표자는 답변을 하는 대신에 조용히 경청한

후 간단히 맞장구만 치면 된다. 특히 경청은 곤란한 질문에 대하여 위력을 발휘한다. 곤란한 질문일수록 답변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듣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질문자도 답변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심나면 국회 청문회를 보면 된다. 국회의원은 어렵게 불러 낸 증인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열심히 질문만 해 되지 않는가.

**사족:** 감성은 느낌이나 인상이며 연민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청중이 느끼기에 발표자의 실력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발표자의 인상이 좋지 못하면 그 발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의 자신감이나 복장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의 오,탈자가 청중에게 나쁜 느낌을 주어 자료의 신뢰성이 치명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 7

## ■ 구인

### ▶ 국가지정연구실 (NRL) (생체신호전달 조절물질 개발연구실, 서울대 약대), (유기합성관련 분야) 박사후 연구원 (Post. Doc) 및 석사연구원 모집

서울대 약대 생체신호전달 조절물질 개발연구실 (김상희 교수)에서 다음과 같이 박사후 연구원 (2명) 및 석사연구원 (2명)을 초빙합니다.

본 실험실은 국가지정연구실 (NRL)로 생체신호전달 조절물질 개발과 의약품개발 및 신소재개발을 위하여 생리활성 천연물을 기본으로 하여 전합성 및 유도체들의 합성 또는 combinatorial chemistry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의 합성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연구분야 : 유기합성 전 분야

(organic chemistry, 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또는 total synthesis)

2. 지원자격 : 해당분야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3. 근무지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4. 월급여 및 혜택 :

박사후 연구원 : 150 - 200 만원 (기타 사항은 면접 후 결정)

서울대 약대 연구소의 책임 또는 선임연구원으로 등록 (경력에 반영)

석사연구원 : 80 - 120 만원 (기타 사항은 면접 후 결정)

서울대 약대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등록 (경력에 반영)

5.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연구분야 및 경력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 연구실적목록

6. 연락처:

(1) 전화 : 02-740-8913 (교수님), 8914 (연구실, 담당자 : 이태호)

(2) E-mail : lth75@snu.ac.kr

(3) Homepage : <http://plaza.snu.ac.kr/~napri/pennkim>

# 연구 논문 쓰기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 주제 정하기

논문은 독창적인 생각이나 연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다른 사람도 재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요즘은 학제간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다른 분야의 전공자도 쉽게 논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문도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때 주제의 범위가 가급적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제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실험을 수행한 후 논문 뼈대를 논리전개 구도로 그려보아야 한다. 이것을 구상단계라 하는데, 즉 서론, 본론 및 결론의 개요를 적는 것이다. 논문 작업은 서론, 본론 및 결론을 먼저 작성하고 요약이나 초록은 뒤에 쓰는 것이 좋다. 제목은 제일 나중에 붙이는데, 결론의 내용이 확연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점검이야말로 화룡점정(畫龍點睛)이다. 귀찮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또 보아야 한다. 작성자가 적어도 6~7회, 관계 전문가가 2회 이상 교정을 해야 하며, 매 번의 점검이 끝나면 충분한 냉각기간을 두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고(堆鼓)를 해야 자기의 실수를 발견할 수 있다.

## 제목은 결론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읽는 사람은 제목만 보고 논문을 읽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제목에 결론의 내용을 축약하면 읽는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이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만 해도 훌륭한 제목이 된다. 여기에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매력을 갖추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반면에 구체성을 결여한 일반적인 내용은 적합하지 못하며, 너무 간단하거나 긴 제목도 바람직하지 않다.

## 초록이 중요하다

논문에서 초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문헌 검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등록해 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은 반드시 영어로 써야 한다. 초록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영어 초록의 수준이 형편이 없다. 대부분이 미국에서도 오래 전에 파기된 형식의 초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구닥다리 형식을 국내 학회 ‘논문 초청 안내서’에 표준 양식으로 추천까지 하고 있다.

초록이란 논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 논문을 읽지 않고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압축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초록은 그 자체로써 완성된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Make each abstract self-contained, since it must be intelligent without reference to the document itself.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초록에는 크게 서술적 초록과 정보적 초록이 있다.

## 초록의 종류

### 서술적 초록(Descriptive Abstract)

: 문제에 대한 설명, 목적, 범위 및 방법까지만 기술 평론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 정보적 초록(Informative Abstract)

: 서술적 초록에 결과, 결론 및 권고사항을 포함, 논문에 널리 쓰이는 형식

초록은 국제적인 표준양식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영어로 써야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 초록에서 주의사항

- 제목에서 연구 결과를 초록의 첫 문장에서 어떤 연구인지를 알게 하면 최고이다.
- 첫 문장은 목적이거나 '핵심 주제를 취급한' 배경을 가능한 한 한 문장으로 처리한다.
- 서론에서 취급하는 '단순한' 배경이나 본문의 그림 및 수식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지면의 제약으로 표제 내용의 반복이나 본문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안 된다.
- 연구비의 출처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실도 기재하지 않는다.
-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나 고찰은 넣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 목적과 관련이 깊은 권고사항은 포함한다.
- 보고서 마지막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요약(2~3 쪽)과도 구분되게 해야 한다.
- 초록은 영어 200~250 단어 정도만을 사용한다. 13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종래에는 초록을 반드시 수동태로 썼으나 요즘은 능동태로 쓴다. 수동태를 사용하면 주어는 빼는 만큼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핵심 단어(key word)는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핵심 단어는 정보 검색 시에 다른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영문 정보적 초록(Informative Abstract) 쓰는 법

예전 형식의 초록과 문제점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이 초록은 2년 전까지 원자력학회가 회원들에게 총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에 수록하는 초록의 표준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던 예시이었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Power Distribution and Safety in Soluble Boron Free Core Through Alteration of Fuel Composition

### Abstract

A new concept of Pu-238 added fuel is introduced to control the reactivity and power distribution in soluble boron free(SBF)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core. Though excessive use of burnable poison and control rods is inevitable for reactivity suppression in SBF core, it causes the core power distribution control to be so difficult that a practical SBF operation is far distant. In this work, it is confirmed that the excess reactivity can be greatly suppressed by introducing the PU-238 added fuel. As the result of the conceptual core design of the 600MWe SBF PWR using the Pu-238 added fuel, the core power distribution is well controlled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previous 600 Mwe SBF core design work. Safety analysis of the SBF core is tested about two limiting accidents, steam line break accident and rod cluster control assembly ejection accident, and it is verified that the SBF core is safer than the previous SBF core against the two limiting accidents. Hence, one of the difficult problems arising in SBF core design can be greatly mitigated by introducing the new fuel concept. It is further expected that the Pu-238 added fuel introduced in this study is directly applicable to practical SBF core design.'

문제점이 많다.

### 가. 제목이 모호하다

제목에 'A Study on'은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A Research on'과 같은 단어는 사족이다. 또,

‘Improvement’, ‘Alteration of Fuel Composition’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향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지를 적어야 한다. 이 논문은 초록만 보아서 구체성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안전성 5% 향상’이라고 해야 한다. ‘Alteration of Fuel Composition’도 ‘Pu-238 Added Fuel’이라고 구체화해야 한다.

제목은 결론의 핵심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Pu-238 Added Fuel Improved Power Distribution and Safety in Soluble Boron Free Core’로 바꾸는 것이 좋다.

## 나. 초록의 첫 문장은 연구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초록의 첫 부분에는 이 연구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한 문장에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제목과 첫 부분만 보고도 핵심 정보의 대부분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이 부분이 3문장 7줄로 되어 있다.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연구의 배경과 결과이다.

A new concept of Pu-238 added fuel is introduced to control the reactivity and power distribution in soluble boron free(SBF)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core. Though excessive use of burnable poison and control rods is inevitable for reactivity suppression in SBF core, it causes the core power distribution control to be so difficult that a practical SBF operation is far distant. In this work, it is confirmed that the excess reactivity can be greatly suppressed by introducing the PU-238 added fuel.

→ This work introduce a new concept of Pu-238 added fuel to suppress the excess reactivity in soluble boron free(SBF).

## 다. 수동태의 표현이 전부이다

예전에는 초록에서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수동태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요즈음은 철저히 능동태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In this work, it is confirmed’은 현재 미국에서 제발 쓰지 말라고 당부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초록은 전부 피동형이다.

피동태가 곤란한 형태가 있다. 바로 연구 방법이다. 연구방법은 피동태로 하되 다른 것들은 모두 능동태로 하는 것이 좋다. 능동태로 하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글자 수도 줄일 수 있다.

### 〈영문 정보적 초록 쓰기 실례〉

Long-Distance Running is Good For Older Patients

Abstracts

This report investigates the long-term effects of long-distance running on the bones, joints, and general health of runners aged 50 to 72. The Sports Medicine Institute of Columbia Hospital sponsored this investigation, first to decide whether to add a geriatric unit to the Institute, and second to determine whether physicians should recommend long-distance running for their older patients. The investigation is based on recent studies conducted at Stanford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Florida. The Stanford study tested and compared male and female long-distance runners between 50 and 72 years of age with a control group of runners and non-runners. The groups were also matched by sex, race, education, and occupation. The Florida study used only male runners who had run at least 20 miles a week for five years and compared them with a group of runners and

non-runners. Both studies based findings on medical histories and on detailed physical and X-ray examinations.(So far called 'descriptive abstract')

Both studies conclude that long-distance running is not associated with increased degenerative joint disease. Control groups were more prone to spur formation, sclerosis, and joint-space narrowing and showed more joint degeneration than runners. Female long-distance runners exhibited somewhat more sclerosis in knee joints and the lumbar area than matched control subjects. Both studies support the role of exercise in retarding bone loss with aging. The investigation concludes that the health risk factors are fewer for long-distance runners than for those less active between the ages of 50 and 72. The investigation recommends that the Sports Medicine Institute of Columbia Hospital consider the development of a geriatric unit a priority and that it inform physicians that an exercise program that includes long-distance running can be beneficial to their patients health.

이 내용을 영어보다는 일단 우리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따라서 번역된 내용을 보기로 한다.

### 장거리 달리기는 노인 환자에게 좋다

이 보고서는 50세에서 72세 사이의 사람이 장거리 달리기를 오랫동안 할 때 뼈, 관절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콜롬비아 병원이 이 조사를 지원하였는데, 그 목적은 첫째가 병원에 노인학과와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둘째가 나이 든 사람에게 장거리 달리기를 권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이

조사는 스탠포드 대학과 플로리다대학에서 수행된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중략)

(여기까지가 서술적 초록)

두 대학의 연구 결과는 장거리 달리기는 퇴행성 관절 질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달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퇴행성 질환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략) 이 조사의 결론은 50세에서 72세 사이의 사람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편이 건강 위해 요소가 낮다는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권의하는 사항은 병원에 노인학과를 신설하고 나이 든 사람에게 장거리 달리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이 예는 Handbook of Technical Writing(St. Martin's Press, Gerald J. Aferd, Charles T. Brusaw & Walter E. Oliu:2000)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 책은 초록을 구성 성분별로 다음과 같이 쓰기를 권장하고 있다.

### 초록의 구성과 순서

#### ○ 제목

- 결론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간결하게 7 ~ 10 단어로 표시함

#### ○ 목적

- This report investigates... first to decide... second to determine...
- 두 문장으로 분리한 것은 한 문장으로 하면 너무 길기 때문임

#### ○ 방법

- The investigation is based on...
- 연구 방법 설명은 수동태가 많이 쓰인다. 최대한 능동태로 표현하더라도 실험이나 기자재가 주어로 쓰이면서 문장이 수동태의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임

#### ○ 결과

- Both studies conclude that...
- conclude 대신에 confirm이나 result를 사용하면 결과의 성격을 더 뚜렷하게 표현함

○ 결론

- The investigation concludes that...

○ 권고사항

- The investigation recommends that...

**서론은 간략하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서론은 ‘무엇을’, ‘왜’ 쓰는가를 주로 밝힌다. 따라서 배경, 문제제기 및 목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연구사항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논문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며, 남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들을 서서히 자신의 논리에 끌어들이려면 읽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결하되 정곡을 찌르듯이 작성해야 하며, 총설 또는 해설을 쓰는 기분으로 장황하게 박식함을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배경** :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한 연구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다.

**문제제기(또는 필요성)** : 지금까지 행한 연구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문제점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범용 용어에 국한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핵심 용어라 하더라도 서두에서는 이 용어의 뜻이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인지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예제를 잘 선택하여 읽는 사람이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된 문제 정의와 예제는 논문의 성공 여부를 반 이상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을 통해 읽는 사람은 논문의 성격과 내용을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이다.

**목적 및 전개방향** : 연구 목적과 범위 및 전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본론은 독창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본론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 그 내용과 방법을 기술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연구과정에서 고찰한 의견을 개진한다.

**내용 및 방법** :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의 독창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자료, 이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갖게 한다. 실험의 경우에는 제3자가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실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재현성을 보장한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고,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은 부분은 부록에 포함시킨다. 참고 문헌을 정확히 인용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결과 및 고찰** : 연구에서 얻은 사실(데이터)과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논리적인 결과들을 제시한다. 연구를 통해 느낀 특이사항을 고찰 형식으로 기술한다.

**결론은 문제의 해답을 정리하고 제언을 제시한다**

결론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간추려 정리하고, 미진한 내용은 제언이나 건의사항에 포함시킨다.

**결론** : 결론은 본론의 각 장에서 도출한 작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해답으로 마무리 짓는다. 자기가 주장하는 알맹이가 결론에 모두 들어가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나 주장을 결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언 또는 건의사항** : 결론에는 단순히 본문만을 요약해서는 곤란하다. 자기 논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며 부족한 과제에 대한 소개와 이의 해결 방안을 제언이나 건의사항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실험 및 기술상의 결함, 부정적인 실험 결과, 자신과 타인의 실험 결과의 차이점들을 정직하게 기술해야 한다.

**요약은 논문의 내용을 2~ 3쪽에 압축한다**

요약은 그야말로 본문의 서론, 본론 및 결론의 내용을 압축된 형태로 기술한 것이다. 단, 초록과는 달리



배경이나 필요성, 중요한 그림 및 수식 등이 포함되며 분량도 2~3쪽이 된다.

[www.ncsu.edu/labwrite](http://www.ncsu.edu/labwrite)(SAMPLE ANNOTATED LAB REPORT)

### The Optimal Foraging Theory: Food Selection in Beavers Based on Tree Species, Size, and Distance

Abstract. The theory of optimal foraging and its relation to central foraging was examined by using the beaver as a model (summarizes the Introduction).


Beaver food choice was examined by noting the species of woody vegetation, status (chewed vs. not-chewed), distance from the water, and circumference of trees near a beaver pond in North Carolina (summarizes the Methods). Beavers avoided certain species of trees and preferred trees that were close to the water. No preference for tree circumference was noted (summarizes the Results). These data suggest that beaver food choice concurs with the optimal foraging theory (summarizes the Discussion).

= This abstract is a mini-version of the entire paper. It summarizes each section of the report in chronological order.

#### Introduction

In this lab, we explore the theory of optimal foraging and the theory of central place foraging using beavers as the model animal.

= Identifies the scientific concept which forms the learning context for the lab. Foraging refers to the mammalian behavior associated with searching for food. The

optimal foraging theory assumes that animals feed in a way that maximizes their net rate of energy intake per unit time (Pyke et al. 1977). 

## DSYU English Editing Service

국제학술지 게재용 이공학 연구 논문  
영어 수정 및 편집 홈페이지

[www.editpaper.co.kr](http://www.editpaper.co.kr)

#### ● 연락처

E-mail: [editor@editpaper.co.kr](mailto:editor@editpaper.co.kr)  
전화: 011-824-3334

# ‘글 못쓰는 교수들’을 위한 글쓰기 기법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먼저 수필 하나를 소개한다.

## 글 못쓰는 교수들

월간지 편집 일에 종사하다 보니 각계각층 사람들로 부터 원고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에서부터 교수·연구원·방송인·공무원, 그리고 주부와 농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로 부터 원고를 접수한다. 그들이 써 온 것들 정성껏 고려 잡지에 예쁘게 편집해 넣는 게 편집자들의 역할이다.

나는 거의 17년간 이런 일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여러 직업인들 가운데 대학교수가 대체로 글을 잘 못쓰는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교수의 작문 실력은 전체 필자의 중간 정도 가기도 힘들었다. 교수 10명 중 7~8명은 한글 맞춤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원고를 읽다 보면 도대체 어느 것이 주어이고 술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문장이 축축 늘어져 한 문장을 두세 토막으로 나눠야 하는 때도 종종 있다.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원고도 심심하게 만난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원고를 전체적으로 다시 써 줘야 하는 답답한 상황도 벌어진다.

서울의 유수한 대학, 그것도 국문과에 적응 둔 교수·연구원 시인·이기도 한 이가 맞춤법이 엉망인 원고를 보내와 충격을 받은 기억도 있다.

어떤 교수는 한글 맞춤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고 속에 ‘맞춤법’을 ‘마춤법’으로 표기한, 못지 못할 일도 있다. 그런 이들이 대일 수험생들에게 논술교사를 요구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다.

교수는 말과 글과 연구를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계층일 것이다. 그들의 부실한 작문실력은 잘못된 교수 임용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왜 이런 글이 나왔을까? 교수는 글쓰기를 두려워한다. 글쓰기가 본래 어려운데다 학교에서 제대로 글쓰기를 배우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다. 글쓰기에 관한 한 초·중·고·대학의 16년간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 교수가 되어 배우고 싶어도 마땅히 배울만한 교재도 없다. 요행히 그러한 교재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문제는 교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직장인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따라서 교수 글쓰기를 직장인 전체의 글쓰기 범주에서 다룬다).

## 힘글쓰기(Power Writing)기법의 도입 배경

나는 2000년 3월에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를 내었다. 반응이 무척 좋아 여러 회사, 연구소,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있다. 다녀보니 글쓰기는 이공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인문계를 전공한 직장인이거나 교수도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끊임없이 했다. 글의 구조와 논리가 통일되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 같았다.

글의 구조와 논리는 저번의 책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저번의 책은 기술글쓰기(Technical Writing)기법, 즉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읽는 사람 위주의 글쓰기, 알기 쉬운 글쓰기, 간결한 글쓰기만을 다루었다.

글의 구조와 논리는 직장에서 중요하다. 글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적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무엇을’ 적는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에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소재를 찾아 ‘글짓기’를 하지만 직장에서는 업무 자체가 ‘무엇’에 해당하기에 ‘어떻게’ 쓰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는 곧 구조와 논리의 문제이다.

- 박준근(월간 <전원생활>편집장

글의 구조와 논리는 직장에서 사안에 따라 관련 서식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고, 또 선임자들이 써 놓은 것들이 많다. 이들을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선임자가 해 놓은 것을 보면 간단한 업무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복잡한 업무는 그게 아니다. 후배인 자기가 보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를 개선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

선임자의 전례가 없는 경우도 많다. 머릿속에 생각들은 무수히 돌고 있는데 이게 글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 무엇부터 써야하는지 막막하다. 그러자려 써 상사에게 가져가면 상사가 새빨강게 고친다. 이를 더 높은 상사에게 가져가면 또 고친다. 그런데 이번에 고친 것은 처음에 자기가 쓴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은 최고결재권자의 취향이 해답이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마냥 축난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한다. 직장마다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직장인 글쓰기의 전형(典型, 틀, model)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의사전달을 ‘정확하고,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일된 글의 구조와 논리가 있으면 이보다 반가운 일이 있겠는가. 나는 이것 찾아 나섰다.

그런데 주위에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했다. 글은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자의성이 많고 워낙 다양한 형태를 가져 ‘표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돌이’인 나의 생각은 달랐다. 글도 생산성과 관련이 있으면 표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게 없으면 나 혼자라도 만들어 보면 되는 것 아닌가. 필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비장한(?) 각오가 무색하게 글의 구조와 논리가 표준화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힘글쓰기(The Power Writing)’이다.

## 힘글쓰기 기법과 효과

힘글쓰기는 간단하다. 글의 구조를 ‘주제나 주장 - 근거(설명/이유) - 증명(자료/의견/사실/사례) - 주장’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먼저 주제나 주장을 제시하고,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설명을 하거나 이유를 든다. 그 다음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증명을 하는데 연구(또는 조사) 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물적 증거(또는 사실)를 대거나 예를 든다. 마지막에 다시 주제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1-2-3-4의 숫자를 부여한다. 여기에 숫자 0을 보탠다. 0은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군지, 이 글을 어떤 논리로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준비과정이다.

이러한 힘글쓰기 원리를 학교에서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숫자 0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숫자 1-2-3-4를 나머지 손가락에 붙인다. 그리고는 어떤 글을 쓰더라도 그저 손가락 다섯을 펴서 Hi, Five!를 외치고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준비(0)-주제나 주장(1)-근거(2)-증명(3)-주제나 주장강조(4)를 순서대로 답는다.

힘글쓰기는 효력도 강력하다. 설득력을 높이도록 정보를 배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반드시 힘글쓰기를 알아야 살아남는다. 재판에서 변호사가 쓰는 문장이 힘글쓰기이다. 피고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와 구조도 힘글쓰기 방식이다. 따라서 피고가 재판에서 살아남는 기법 이어서 생존의 글쓰기(The Survival Writing)라고도 한다.

미국의 글쓰기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전달’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용성에 바탕을 둔 이 목표에 잘 부합하는 것이 힘글쓰기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힘글쓰기를 배우고 있다.

힘글쓰기가 ‘효과적인 의사전달’이라는 실용적인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힘글쓰기가 신문기사를 점점 많아 가고 있다. 신문이 이미 그러한 영역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고등학교는 500개 이상이 ‘Newspapers in Education(NIE:신문활용교육)’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 힘글쓰기의 적용

힘글쓰기 기법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니 그 성과는 놀라웠다. 6시간 정도 학생들(영남대 화공전공)에게 힘글쓰기 기법을 가르친 후, 신문 사설 가운데 잘 못 쓴 글을 찾아내어 이를 수정해 오라는 과제를 주었더니 내가 보기에만 만족스러운 수정을 해 왔다. 짧은 시간에 글을 보는 안목이 생긴 것이다.

힘글쓰기 기법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글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전달에는 두루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직장에서 쓰는 기획서, 보고서, 설명서

신문의 기고문, 수필

학교에서 쓰는 논술(에세이)

발표와 면접

특히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은 이 책 하나로 에세이 쓰기의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한국 학생의 고질적인 약점인 ‘주제가 없는 글’, ‘논리가 약한 글’을 해결할 수 있다. 유학생이 연필만 들면 주어진 틀에 자신의 생각을 쉽게 담을 수 있다.

## 힘글쓰기 기법을 통한 앞글의 수정

힘글쓰기 기법이 어떻게 글을 ‘쉽게 쉽게’ 수정하는지 그 과정을 소개한다. 힘글쓰기 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따라 오기가 쉽지 않다. 굳이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기 바란다. 힘글쓰기가 어떤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 가. 문단

앞의 글은 문단이 형식적으로 7개이다. 신문은 칼럼의 폭이 좁아 의미상 하나의 문단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문단을 형식적으로 여럿으로 나눈다. 따라서 의미상의 문단으로 다시 구분하면, 앞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단을 합쳐 전체적으로 네 개의 문단으로 한다.

### 나. 글의 구조

의미상 네 개의 문단이다. 각 문단의 소주제를 정리해서 힘글쓰기의 숫자를 붙인다.

- 1; 교수는 글 못 쓰는 부류
- 2; 한글맞춤법에 무지                      2; 맞춤법이 엉망
- 4; 잘못된 교수 임용 정책과 관련

### 다. 글의 논리

주제(1)을 뒷받침하는 소주제(2)들이 나란히 병렬관계임으로 귀납법이다. 그런데 첫 번째 소주제와 두 번째 소주제가 ‘맞춤법’으로 중복이 된다. 문제가 있다.

### 라. 소주제문

첫 번째 소주제문이 문단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문단을 대변하려면 ‘우리글의 문장구조에 무지’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소주제문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교수 10명 중 7~8명은 한글 맞춤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 교수 10명 중 7 ~ 8명은 우리글의 문장구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 마. 소주제문의 위치

‘대학교수의 작문 실력은 필자의 중간도 안 된다.’는 두 번째 ‘의미상 문단’의 제일 앞에 나와 있어 형식적으로 두 번째 ‘의미상 문단’의 소주제문이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이 문장은 앞 문단 끝에 가야하며, 그렇게 놓고 보니 이 문장은 앞문단의 소주제문이 된다. 즉 이 소주제문은 첫 문단의 소주제문으로 미괄식이며 주제(1)를 도입하는 주제문이 되기도 한다.

바. ‘문장이 축축 늘어진’ 부분을 손질한다. 글은 군더더기가 있으면 힘이 약해진다.

충격을 받은 기억도 있다.

→ 충격을 받았다.

교수임용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 교수임용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사. 상기 내용을 반영한 수필은 다음과 같다. 1-2-2-4의 논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주제문(1)은 미괄식, 소주제문(2)-(2)는 두괄식, 주제문(4)은 미괄식으로 하고 이들을 굵게 표시하였다. 위치가 바뀐 문장과 표현이 바뀐 단어는 밑줄체로 표시되어 있다. Ⓢ

### 글 못쓰는 교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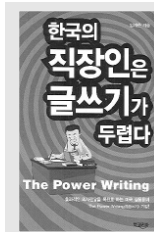
월간지 편집 일에 종사하다 보니 각계각층 사람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에서부터 교수·연구원·방송인·공무원, 그리고 주부와 농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로부터 원고를 입수한다. 그들이 써 온 것을 전성껏 교쳐 잡지에 예쁘게 편집해 넣는 게 편집자들의 역할이다. 나는 거의 17년간 이런 일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여러 직업인들 가운데 대학교수가 대체로 글을 잘 못쓰는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교수의 작문 실력은 전체 필자의 평균 정도 가기도 힘들었다.

교수 10명 중 7~8명은 우리들의 문장구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원고를 읽다 보면 도대체 어느 것이 주어이고 술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문장이 축축 늘어져 한 문장을 두세 토막으로 나눠야 하는 때도 종종 있다.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원고도 심심찮게 만난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원고를 전체적으로 다시 써 줘야 하는 답답한 상황도 벌어진다.

서울의 유수한 대학, 그것도 국문과에 적을 둔 교수이면서 시인이기도 한 이가 맞춤법이 엉망인 원고를 보내와 충격을 받았다. 어떤 교수는 한글 맞춤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고 속  
에 ‘맞춤법’을 ‘마춤법’으로 표기한, 웃지 못할 일도 있다. 그런 이들이 대입 수험생들에게 논술교사를 요구하는 아이러니  
결한 현실이다.

교수는 말과 글과 연구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계층일 것이다. 그들의 부실한 작문실력은 잘못된 교수임용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 \* 다음에는 힘글쓰기(Power Writing)의 원리를 게재한다.
- \* 힘글쓰기는 ‘한국의 직장인은 글쓰기가 두렵다(대북코리아)’라는 제목으로 2005년, 70에 책으로 발간

## 7. / 7

### ■ 구인

#### ▶ 연세대학교 화학과 국가지정 화학 생물학 연구실 석사 및 박사후 연구원 모집

본 연구실은 2005년부터 과학재단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되었으며 산자부 및 과기부등의 지원을 받아 화학생물학(chemical biology)에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박사과정 학생 또는 석사 및 박사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연구분야 : 유기화학
2. 지원자격 : 해당 분야의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3. 근무지 : 연세대학교 화학과 화학 생물학 연구실
4. 급 여 : 박사과정 : 교내장학금외 100-120만원 지급  
석사후 연구원 : 1400-1600 만원  
박사후 연구원 : 2200-2400 만원
5. 제출서류 : 이력서(e-mail 접수)
6. 연락처 :  
(1) 전화 : 02-2123-2631 (교수님)  
(2) E-mail : injae@yonsei.ac.kr  
(3) Homepage : <http://chem.yonsei.ac.kr/~injae>

# 제1장: The Power Writing(힘글 쓰기)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 1. The Power Writing의 원리

남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대학의 스파크스 박사(DR. J. E. Sparks)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작가까지 위대한 고전을 총망라한 브리태니커사의 'Great Books' 시리즈<sup>1)</sup>에서 소설체 작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작가를 모두 조사해보았다. 이로서 내린 결론이 이들 모두가 'main idea'를 제시하고 이를 'details'로 뒷받침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관찰로부터 스파크스 박사는 이들에 숫자를 부여하는 'The Power Writing(힘글쓰기)'<sup>2)</sup> 원리를 1982년에 그의 저서 'Write for Power'에서 소개하였다.

힘글쓰기는 문장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숫자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구체성을 심화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상세한 문장이 된다. 숫자가 올라 갈수록 설득하는 힘(Power)이 높아진다.

Power 1 = main idea or focus

Power 2 = major detail, supporting

Power 3 = minor detail, elaboration

Power 4 = main idea or focus

힘글쓰기를 우리식으로 해석해 두는 것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힘글쓰기는 글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

힘 1 = 주제, 주장

힘 2 = 근거(주로 방법/이유)

힘 3 = 증명(주로 자료/의견/사실/예)

힘 4 = 주제, 주장

회원수 90,000여명의 미국 영어 교사 협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는 이 원칙을 학교에서 단어, 문장, 문단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교육한다. 학년이 높아 갈수록 수준만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직장에서도 글쓰기에는 당연히 이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정보기술(IT) 산업은 힘글쓰기 기법을 철칙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힘글쓰기는 총론은 통일되어 있지만 각론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간단한 힘글쓰기 원칙 아래 세부적인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각 주(州)마다 교육자치가 이루어져 주마다 특성을 가진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들의 개성과 창의력이 글쓰기 교육에서 최대한 발휘되기 때문이다. 셋째, 힘글쓰기의 구체적 방법은 지도교사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구체적인 방법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나는 이러한 다양성을 통합하고, 해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힘글쓰기 기법<sup>3)</sup>으로 재구성하였다.

### 단계 1: 단어 차원의 힘(Word Power) 기르기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번호 1에 적으면 학생은 2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단어를 적는다.

1) 60권짜리 영어판 책이다. 번역본은 없다.

2) 외국어는 소개될 때 우리말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힘글쓰기'로 이름을 지었다. 힘글쓰기로 쓰인 글을 '힘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1 동물

## 2 개 2 고양이 2 토끼

## 1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세 가지 이유

## 2 귀여움 2 잘 놀아줌 2 말썽을 안 피움

이 훈련을 통하여 유치원 학생은 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단어들이 수직적인 주종관계이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단어들은 서로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을 파악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이 책을 읽고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한다. 선생이 마야문명의 멸망에 대한 책을 주면서 ‘마야인이 스페인사람을 두려워한 이유 세 가지’를 찾아내는 숙제를 준다. ‘마야인이 스페인사람을 두려워한 이유 세 가지’가 바로 주제다. 즉 1이 되는 것이다. 다음 날 학생들로 하여금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단어를 나열해 보게 한다.


## 1 마야인이 스페인사람을 두려워한 세 가지 이유

## 2 무기 2 대포 2 갑옷 2 말 2 천연두

1차적인 답이 나오면 선생은 이 답이 ‘맞는지’,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천연두는 마야인의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킨 주된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니기에 제외시킨다. 다음은 이 답이 균형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이때 균형은 ‘중복과 누락’<sup>4)</sup>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포’와 ‘갑옷’은

무기에 포함시킬 수 있기에 중복되며, 중요한 ‘흰 피부’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무기, 말, 흰 피부로 균형을 잡아준다.

다음 단계는 선생이 책을 지정해 주고 학생이 이를 읽은 후 주제를 정하여 글을 써 오게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우리처럼 참고서가 없다. 학원도 없다. 우리는 교과서가 압축된 내용만을 담았기에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참고서와 학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교과서 자체가 두툼한 소설판이다. 이를 읽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는 영어과목에 한정된 수업형태가 아니고, 어떤 과목에서도 읽기 수업을 병행한다. 따라서 읽기를 앞세우는 수업은 사회나 자연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읽고 이해한 내용을 쓰기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훈련을 한다.<sup>5)</sup>

학생은 책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자기가 하나 정한다. 힘 1이다. 다음은 이 주제를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 3개를 찾아낸다. 힘 2이다. 학생은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성이 적은 것은 빼내고, 또 중요한 것이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추도록 한다.<sup>6)</sup> 

3) 미국은 교사마다 이렇게 한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은 입재춘의 힘글쓰기로 볼 수 있다.

4) 이런 전문용어는 맥킨지와 같은 용역회사가 MECE(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균형을 갖추게 하는 것(Balanced)과 같다. MECE는 나중에 ‘힘글쓰기 이론의 배경’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5) 정보시대에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이를 선별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체화하는 것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지식을 학교로부터 배울 수 없기에 스스로 익혀야한다. 미국의 글쓰기는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글쓰기는 창조적인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국어공부의 일환이기에 ‘글짓기’이다. 문화적인 글쓰기이다.

6) 미국의 교육은 상향식(Bottom up)이다. 학생이 기본과 배경을 이해하고 결론을 스스로 유도해내도록 선생이 도와준다. 이에 반해 우리는 결론부터 나와 있는 교과서를 보고 그 배경과 원리를 참고서를 통해 배운다. 하향식(Top down)이다. 두 나라가 반대이다. 두 나라가 직장에서 글을 쓰는 순서도 다르다. 우리는 직장에서 글을 배경과 필요성부터 시작한다. 미국은 결론부터 쓴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 제2장: 문장 차원의 힘(Powergraph)기르기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단어 대신 문장 몇 개로 하나의 문단을 만드는 훈련이다. 단어 하나를 문장 하나로 확대하고 이를 묶어 문단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Powergraph(힘문단)'이라고 부른다. 가장 전형적인 힘문단은 1-2-3-4 형식이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how(어떻게)'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제-근거(설명)-증명(자료/의견)-주제의 형식이다. 다른 하나는 'why(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장-근거(이유)-증명(사실/사례)-주장의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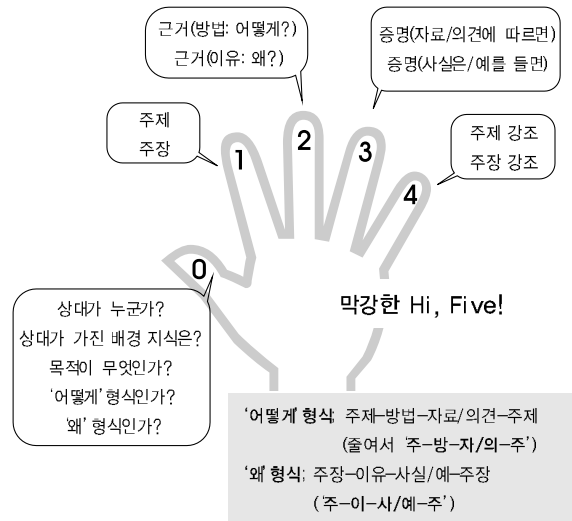
### ‘어떻게’ 형식; 주제-설명-자료/의견-주제

코알라는 나무 위에서 사는 진기한 동물이다(1). 코알라는 배주머니를 등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고 있으며...(2). 연구 자료(또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새끼는 어미의 배설물을 먹이로...(3). 코알라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다(4).

### ‘왜’ 형식; 주장-이유-사실/사례-주장

캥거루는 초원에서 사는 진기한 동물이다(1). 캥거루가 왜 진기하나하면 아주 작은 새끼를 낳아 배주머니에서 양육...(2). 사실 갓 태어난 새끼는 50g 밖에 나가지 않으며...(또는, 예를 들면 금방 나온 새끼는 골프공 정도로...(3). 캥거루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다(4).

1-2-3-4 유형은 힘문단의 기본형식이라 선생이 매우 중요시한다. 이 개념을 재미있고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 Hi, Five!를 적용한다. 손을 펴고 손가락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다. 엄지손가락이 힘 0이다. 힘 0은 어떤 글이든지 글을 쓸 때에는 글을 읽을 상대를 ‘영(0) 순위로 고려하라는 것이다. 즉, 상대가 누군가? 상대가 가진 배경 지식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형식인가? ‘왜’ 형식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읽는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인 설



【도표 1-1】 손가락별 역할

명 방법을 '기획' 하는 단계이다. 숫자 0을 붙인 또 다른 이유는 글로서는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형식은 주로 주제를 뒷받침할 때 많이 쓴다. 따라서 직장에서 쓰는 보고서, 설명서와 논문 등에 활용된다. 한편 '왜' 형식은 주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컨설팅 보고서, 면접, 발표 등에 적용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는 신문의 기고문, 학생의 논술(에세이)이 있다.

'왜' 형식이 발표(Presentation)기법중의 하나인 PREP<sup>1)</sup>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유의하자. Point(주장)-Reason(이유)-Example(예)-Point(주장)의 순서이다. 그래서 미국 학생은 주장이나 설득을 할 때 왼쪽 손을 펴서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집어 가며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1) 처칠이 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된다.



사실, 이와 같은 힘문단의 전형은 학생들이 한참 후에 배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먼저 제시한 것은 읽는 사람이 이러한 기본 틀을 처음부터 알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이러한 기본 틀을 스스로 정립할 때까지 많은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2-3-2-3 형식

호주에는 두 종류의 진기한 동물이 살고 있다(1). 코알라는 나무위에서 산다(2). 그들은 거의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3). 캥거루는 초원에서 산다(2).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산다(3).

이런 간단한 문단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배운다. 교사는 다양한 예문을 학생에게 주어 글쓰기 연습을 시킨다.

예문) 내가 휴가를 가고 싶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나는 꼭 고쳐야 할 두 가지 버릇이 있다.

1-2-3-2-3 형식의 힘문단에 대한 글쓰기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글쓰기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힘 4는 힘 1에서 언급한 주제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 반복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강조 효과를 주는 것이다. 1-2-2-4 형식과 1-2-3-4 형식의 힘문단이 있다.

### 1-2-2-4 형식(병렬형)

나는 두 가지 이유로 고양이를 좋아한다(1). 첫 번째는 고양이는 털이 부드럽고 사랑스럽다(2). 두 번째는 고양이는 나와 잘 놀아 준다(2).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이다(4).

### 1-2-3-4 형식(직렬형)

나는 고양이를 매우 좋아한다(1). 내가 심심할 때면 나와 재미있게 놀아준다(2). 고양이는 공이나 깃털, 끈에 달린 것은 무엇이나 쫓기 좋아한다(3). 아무리 보아도 고양이는 이상적인 애완동물이다(4).

힘 4가 힘 1을 반복하지 않고 힘 3을 구체적으로 심화

하는 방법도 있다. 힘 5는 4를, 6은 5를 ...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다. 직렬을 계속 확장하는 직렬 확장형이다.

### 1-2-3-4-5-6 형식(직렬확장형)

심심할 때면 나와 재미있게 놀아준다(2). 고양이는 공이나 깃털, 끈에 달린 것은 무엇이나 쫓기 좋아한다(3). 특히 고무줄에 깃털을 뭉쳐서 뿔겨 주면 평소에 보기 힘든 동작까지 볼 수 있다(4). 아마도 깃털을 참새로 착각하여 사냥 본능이 나오는 모양이다(5). 몇 번 실패하면 상황이 유리해질 때까지 기회를 노린다(6).

직렬확장형이 있으면 병렬확장형도 있다.

### 1-2-2-2-2-4 형식(병렬확장형)

나는 고양이를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좋아한다(1). 첫째, ... (2), 둘째, ... (2), 셋째, ... (2), 넷째, ... (2), 다섯째, ... (2), 따라서 고양이는 이상적인 애완동물이다(4).

직렬과 병렬이 동시에 늘어나는 직렬-병렬확장형도 당연히 있다. 이렇게 글이 복잡해지면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된 구조도(Graphic Organizer)가 등장한다. 도표 1-2는 직렬-병렬형 힘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조도이다.

### 직렬-병렬형구조도(Organiz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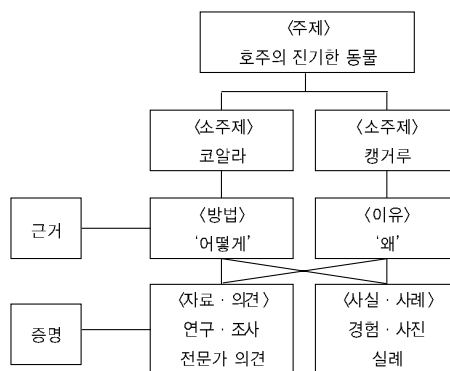



도표 1-2 그림으로 보여주는 구조도(Graphic Organizer)

소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2)-증명(3)이 반드시 '방법-자료/의견과 '이유-사실/사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그렇다는 것이다. '방법-사실/사례'이거나 '이유-자료/의견' 일수도 있다. 자료는 연구자료, 조사자료 등이 있고 통계수치 같은 것도 포함한다.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이 많으나 속담이나 경구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사실은 역사적 사실, 실물이나 사진이 되고 사례는 현재나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낸다. 사례를 현실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미세과학이나 우주과학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인문과학이나 종교에서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앞의 조직도를 보고 쓴 1-2-3-4-2-3-4 형식(직렬-병렬확장형)의 힘문단이다.

호주에는 두 가지 진기한 동물이 살고 있다(1). 코알라는 나무 위에서 사는 진기한 동물이다(2). 코알라는 배주머니를 등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고 있으며...(3). 연구자료(또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새끼는 어미의 배설물을 먹이로...(4). 한편, 캥거루는 초원에서 사는 진기한 동물이다(2). 캥거루가 왜 진기한 하나하면 아주 작은 새끼를 낳아 배주머니에서 양육...(3). 사실 갓 태어난 새끼는 50g 밖에 나가지 않으며...(또는, 예를 들면 금방 나온 새끼는 골프공 정도로...)(4).

초등학교에서 자유자재로 힘문단 형식을 구사할 수 있게 되면 학생은 문단, 문장, 단어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사실 이 정도만 착실히 지켜도 바른 글을 쓸 수 있다. 

### 미국초등학생의 글에 대한 이해

#### One paragraph, One topic

한 문단은 한 소주제만을 다룬다.

소주제문과 뒷받침문장으로 이루어진다.

힘 1인 주제가 소주제문이 된다.

힘 2인 근거가 뒷받침 설명을 한다.

힘 3인 증명이 근거를 더욱 구체화한다.

힘 4인 주제가 힘 1을 다시 강조한다.

문단은 형식적으로 구분한다

문단의 시작은 줄갇이를 하고 시작한다.

들여쓰기(indentation)를 하여 구분한다.<sup>2)</sup>

문단 안에서 문장은 줄을 바꾸지 않는다.

소주제문은 문단의 간판이다

한 문장으로 쓴다.

간단명료하게 쓴다.<sup>3)</sup>

#### One Sentence, One idea

한 문장에는 한 의미만을 담는다.

짧은 문장을 쓴다.

16 단어, 최악의 경우 20 단어를 넘지 않는다.

한 문장은 한번의 숨으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다.

문장의 마지막에 구두점을 찍는다.

한 문장에 반듯이 하나의 구두점만을 찍는다.<sup>4)</sup>

#### One Word, One Meaning

한 단어는 한 개념만을 가진다.

문맥에 맞는 적확(的確)한 단어는 오직 하나다.

2) 문단의 첫 부분을 띄워두는 것을 말한다. 영어는 4~6칸이다. 우리글은 스페이스로 2칸이고 글자로는 한자이다. 요즈음은 영어와 우리글이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3) 길거리에서 식당 간판만 보아도 어떤 음식을 파는지 알 수 있다. 문단도 소주제문이 간판처럼 간단명료하라는 것이다.

4)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에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 알뜰문장술(문장연구사, 장하늘) 245쪽의 지적이다.

① 두려움을 안고 "에잇."하고 힘을 내어 뛰어 올랐다. -(초등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6-1) 48쪽

②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나는 문학공부에는 소질이 없어."라고 말한다. -(중학 국어, 2-1) 53쪽

③ 첫째 마당은 무동(舞童) 마당으로, 각시탈이 무동을 타고 걸립하였다(각시탈은 시중 업히거나 무동을 타고 다니며 땅을 밟지 않게 하였다..).

-(고교 국어(상)) 205쪽

## 제3장: 문단 차원의 힘(기본에세이)기르기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중등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에세이 쓰기가 시작된다. 1-2-2-2-4 형식으로,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힘문단(powergraph)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문단으로 확장하면 서론 한 문단(1')-본론 세 문단(2'-2'-2')-결론 한 문단(4')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5문단으로 이루어지는 에세이를 '5문단 에세이' 또는 '기본에세이'라고 부른다. 기본에세이 쓰기도 손가락을 펴서 하이 파이프!를 외친다.

Power 0 ; 목적을 확인하고 주제나 주장(이하 주제)를 정한다. 읽을 사람을 분석한다. 즉,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어떤 답을 원하는가를 확인한다. 글의 양, 제출기한과 같은 제약사항도 반영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신 있게 다룰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근거와 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주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입장만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반대 입장을 압도하기 위해서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나 에세이는 자기가 주장하는 한 면만을 들어 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확인되면, 어떻게 글을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즉 방법-자료/의견형태의 '어떻게 형식인지, 이유-사실/사례 형태의 '왜' 형식인지, 아님 혼합된 형식인지를 확인한다.

Power 1 ; 서론을 한 문단으로 구성한다. 문단 1'이 된다. 주제를 간략한 주제문으로 쓴다. 주제문을 제일 앞에 두는 두괄식과 제일 뒤에 두는 미괄식이 있다. 두괄식은 주제를 누구나 아는 경우, 주로 주장일 경우에 채택한다(예; 독도는 우리 땅). 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주제 3개를 언급한다. 이 소주제 3개가 본문에서 문단 3개(2'-2'-2')를 구성한다.

한편, 미괄식은 읽는 사람이 주제에 대해 생소한 경우이다(예; 유비쿼터스 진화의 한계). 주제문을 앞에 두면 읽는 사람이 배경을 모르므로 어리둥절해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경설명을 도입부에 곁들인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배경설명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에 국한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에세이가 배경 설명이 길어 낙제이다.

Power 2; 본론을 문단 2', 2', 2'에 담는다. 첫 번째 문단 2'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주제1을 다룬다. 소주제 1을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이를 소주제문(topic sentence)으로 삼아 제일 앞에 두는 두괄식으로 한다. 소주제문을 힘 1\*<sup>2</sup>로 한다. 다음은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2)를 낸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명(3)을 한다.

Power 2; 본문 두 번째 문단; 문단 2' (상동)

Power 2; 본문 세 번째 문단; 문단 2' (상동)

1) 1은 주제 문장이나 1'는 주제 문단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미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새롭게 도입한다.무척 정확하고 편리하다.

2) 1'-2'-2'-2'-4' 형식의 5개 문단에서 본문 2'의 문단은 힘이 2이다. 힘 2'의 문단에서 문장은 다시 힘 1부터 시작한다. 큰 덩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덩이는 다시 시작하는 법이다. 본사에서는 계급이 낮은 사람도 하부 독립기관에서 기관장이 되는 이치이다.

Power 4 ; 결론을 문단 4'에 담는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주제를 마무리 짓는다. 주제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미괄식이 된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의 구조를 잡을 때, 그림으로 된 글의 구조도(Graphic Organizer)<sup>3)</sup>를 참고하지만 글에서는 이러한 그림이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글의 접속어나 부사어이다. 이 둘이 그림을 보여주듯이 글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아래 도표가 그러한 접속어와 부사어의 예이다.

#### 문단을 구분 짓는 접속어나 부사어

##### 힘 2(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방법이나 이유를 제시)

첫째(first), 둘째(second), 셋째(third), 마지막으로(lastly, finally)  
 우선 먼저(to begin with), 특히(above all), 다음(then, next)  
 하나(one), 또 하나(another), 다른(the other, others)  
 역시(also, likewise), 추가로(in addition), 그 위에(moreover, furthermore)  
 반면에(besides), 그러나(however, never the less)

##### 힘 3(증명을 위해 자료를 제시하거나 예를 들기 위해)

즉(namely), ~처럼(like), 다른 말로(in other words)  
 구체적으로(to be specific), 분명히 되며(this can be clarified by)  
 상술포여(this can be explained by),  
 예를 들면(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식으로(in the same manner)  
 그런 경우에(in such cases), 사실(actually, as a matter of fact),  
 이렇기 때문에(because of this), 그러나(however, never the less)

##### 힘 4(마무리하기 위해)

결론적으로(in conclusion),  
 요약하면(in summary)  
 이런 이유들로(these are the reasons, this is why)

이러한 접속어나 부사어를 외우려고 들지 말자. 단어를 단순히 외워서 자신의 지식으로 삼는 방법은 원시적이다. 개개의 단어는 하위의 개념(meaning)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한데 묶어 상위의 의미(즉, 문장 차원의 idea)로, 또 문장들을 묶어 상위의 소주제(즉 문단 차원의 topic)로 정리해 두면 그냥 넘어 가도 된다. 문단 차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접속어는 신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글쓰기에서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읽는 사람이 문단 첫머리에서 접속어만 보아도 그 문단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문단 차원으로 정리하다 보면 접속어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지혜'도 생긴다. 이런 접속어를 뒷받침문장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깨달음이다. 뒷받침문장들은 하나의 소주제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이루어진 한 덩이의 문장들이다. 같은 성격의 문장들에 접속사를 넣으면 일관된 방향에서 자꾸 신호를 넣는 꼴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신호를 넣어 보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 없다.

지혜는 경계해야 할 점도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한 문단 안에서 신호를 거꾸로 자주 바꾸는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반면에'와 같은 신호를 넣으면 읽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려고 작성하는 것과 같다. 문장을 쓸 때 접속사는 가급적 쓰지 말라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문단의 제일 앞에서는 신호를 넣고 문단의 속에는 넣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

3) 글의 구조도(Graphic Organizer)는 발표(Presentation)에서 조직도(Organization Chart)이다. 발표는 그림을 사용할 수 있어 글보다 힘이 좋다. 그래서 파워포인트(Powerpoint)는 조직도를 많이 활용한다.

## 제4장 : 5문단 에세이(기본 에세이) 쓰기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mmail.net

서론-본론2' (1-2-3-3-2-3-3-2-3-3)-본론2' (상동)-본론2' (상동)-결론4'의 형태를 취하는 5문단 에세이의 기본형을 소개한다.

서론은 최소한의 배경을 제시하고 주제를 곧 바로 들어낸다. 읽는 사람이 주제문을 쉽게 알아보도록 주제문에 질게,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문단의 끝에 위치하는 미괄식 문단이다.

본론은 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주제 세 가지에 대해 한 문단이 하나의 소주제를 설명한다. 소주제문(1)이 문단 제일 앞에 나오는 두괄식 문단이다. 질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소주제를 세 개의 근거(2)가 뒷받침을 한다. 이 부분은 '궁서체'로 들어내었다. 이들 근거를 다시 뒷받침하는 증명(3)이 각각 2개씩 뒤따르고 있다.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마지막에 주제를 강조하는 미괄식 문단이다. 이 부분도 질게, 밑줄을 그어 나타내었다. ●

### 고양이는 이상적인 애완동물

“개는 사람에게 최고의 친구이다.” 이 격언은 상당부분 진실이지만 개가 사람이 좋아하는 유일한 동물은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양이 역시 최고의 친구이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고양이는 훌륭한 애완동물이다.

첫째, 사람은 고양이의 사교성을 즐긴다. 많은 고양이가 애교스럽다. 그들은 살짝 다가가와 쓰다듬어 달라거나 턱밑을 긁어달라고 한다. 기분 좋게 그러가리는 고양이를 누가 마다하겠는가? 애교스럽지 않은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놀기를 좋아한다. 공이나 깃털,

끈에 달린 것은 무엇이나 쫓기 좋아한다. 고양이는 특별히 주인과 함께 하는 놀이를 즐긴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고양이도 훈련시킬 수 있다. 개처럼 보상과 벌을 적용하면 고양이는 재주를 부린다. 심부름하는 고양이까지 가능하다!

둘째, 고양이는 문명화한 가족구성원이다. 개와는 달리, 짓거나 큰 소음을 내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야옹'도 그렇게 자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한 존재이다. 고양이는 자주 '사고'치지도 않는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고양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도록 용변상자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새끼고양이는 배운 순간부터 거의 실패하지 않고 이 상자를 사용한다. 도둑고양이조차 용변상자가 보이면 이 상자의 용도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상자를 사용한다. 고양이에게는 발톱이 있어 주인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날카롭고 긴 발톱으로 가구를 핏치 않도록 고양이를 묶어두기도 한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발톱을 깎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애완동물로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는 키우기 쉽다는 점이다. 고양이는 산책시킬 필요가 없다. 집 안에서의 놀이가 충분한 운동이 되고 불일은 조그마한 상자에서 해결한다. 이 상자는 청소하기 빠르고 쉽다. 고양이는 또한 몸단장을 스스로 한다. 목욕시키는 일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데 고양이는 보통 스스로 털을 깨끗이 한다. 고양이는 깨끗함의 관념이 사람보다 낫다. 이뿐만 아니고, 고양이는 몇 시간 동안 집 안에 혼자 두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애완동물과는 달리 혼자 남겨졌을 때 가구를 물어뜯어 망쳐놓지 않는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평소와 하던 대로 행동한다.

고양이는 우리의 보살핌이 적어도 되고, 말쑥을 거의 피우지 않는 우리의 친구이다. 집 안이 좁고 시간여유가 많지 않은 사람은 고양이의 이러한 특성을 고마워해야 한다. 집도 넓고 시간도 넉넉한 많은 사람도 고양이를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고양이의 개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sup>1)</sup>

1) (<http://members.tripod.com/~lklivingston/essay/sample.html>)에서 발췌

# 힘 글쓰기 과정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글은 통상적으로 크게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준비-글쓰기-교정이다. 힘글쓰기에서는 이 단계도 세분하여 POWER(Pre-Writing, Organization, Writing, Editing, Re-Writing)를 적용한다. 즉,

P 글쓰기 준비, O 글의 구조, W 쓰기, E 글 고치기, R 다시 쓰기이다.

## 힘글쓰기 과정-1

### 글쓰기 준비…… Pre-Writing

준비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제를 교사가 정해 주는 ‘문제해결형’이다. 문제해결형은 교사가 낸 문제에 학생이 답을 하는 형태이다. 주로 책을 읽고 적절한 답을 찾아내므로 글의 소재가 책이 되는 셈이다. 결과물은 답안지이다.

한편, 다른 하나는 주제를 학생이 찾아내는 ‘문제발견형’ 또는 ‘주제발견형’이다. 주제발견형은 학생이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쓰는 형태이다. ‘문제해결형’보다 주제를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추가로 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소재가 책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시사문제일 수도 있다. 결과물은 독후감이나 감상문, 투고이다.

주제를 자기가 선정할 때는 맞는 정답을 찾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을 적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때 주제의 범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너무 일반적이고 넓은 범위의 주제는 누구나 아는, 하나마나한 내용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주제가 결정되면 다음은 쓸 내용을 찾아내야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기에 ‘무엇을’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이나 신문, 인터넷 등의 자료를 조사하거나 인터뷰, 실험 등을 한다. 기존의 자료로 글을 쓸 내용을 찾아내지 못할 때는 발상모으기(Brainstorming)를 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새로운 발상을 모을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신선한 내용을 찾아낼 수도 있다.

## 힘글쓰기 과정-2

### 글의 구조…… Organization

‘무엇을’이 결정되면 ‘어떻게’의 차례이다. 글의 내용을 어떻게 조직화하여 글의 뼈대를 갖추는가 하는, 글의 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글의 논리도 여기서 결정한다. 따라서 글의 구조와 논리가 모두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쉽게 해 주는 것이 그림으로 보여 주는 구조도이다.

구조도를 이해하려면 덩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덩이지기(Clustering)는 세세한 단위를 하나씩 분리하여 전개하기보다는 같은 성질을 한 묶음씩 묶는 것이다. 우리의 두뇌는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므로 비슷한 것은 하나로 묶어 처리한다. 글쓰기, 보고, 발표, 의사소통의 어느 것을 하더라도 최대한 덩이를 지어 분류하도록 한다. 덩이 하나 하나는 글에서 문단이 된다. 보고서에서는 덩이를 항목[1, 가, 1), 가), ①, ㉠]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묶인 덩이를 두 방향으로 전개한다. 수직적 전개는 주종관계를 나타낼 때, 수평적 전개는 같은 성격을

옆으로 나열할 때 활용한다.

이런 세부적인 원칙 하에서 글의 구조는 크게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나뉜다. 글은 본론부터 쓰는 것이 좋다.

## 가. 본론의 전개



### "이런 복잡한 글의 구조를 외울 필요는 없다"

우리 두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복잡한 구조로 글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특별히 논리적인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 머리가 자동으로 해결해 준다. 우리는 읽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금방 안다. 그럴 듯한 논리라도 결론이 이상하면 불편을 느끼고 잘못된 논리에 수긍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진위 여부가 저절로 드러난다. 난해한 철학서는 논리를 알아야겠지만 실용적인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잡한 글의 구조를 알 필요는 없다.

문제는 글을 쓸 때이다. 글을 쓸 때에도 읽을 때처럼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우리 머리가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논리를 따지지 않고 글을 써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는 글이 조직화·표준화되지 않아 수공업적인 형태를 띠게 마련이다. 쓰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다. 당연히 능률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여 글의 구조를 표준화하면 논리도 해결하고 글쓰기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읽는 사람도 글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나. 결론

결론은 본론 다음에 쓴다. 결론의 앞부분에는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마지막에 이를 종합한 하나의 통합된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이 주제와 일치하는 주제문이다.

## 다. 서론

서론은 제일 나중에 쓴다. 서론을 먼저 쓰면 심중팔구 주제를 넓게 잡거나, 시작은 좋는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글쓰기에 실패하게 된다. 건물을 먼저 짓지, 간판부터 거는 법은 없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간판쓰기부터 먼저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서론은 '무엇을' '왜' 쓰는가를 다룬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개하려면 글을 쓰는 배경이 '왜' 로 먼저 나오고 '무엇을' 이 나중에 나온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배경 설명이 길면 안 된다. 서론에서 중심은 어디까지나 '무엇을' 이다. 읽는 사람이 '무엇을' 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배경은 '무엇을' 에 빨리 이르도록 최소한의 설명만 해야 한다. 읽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아는 것이 설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배경 설명은 너무 기초적인 것에서 시작해서도 안 된다. 배경을 친절하게,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정보시대에 읽는 사람의 시간을 뺏는 나쁜 글이다. 또 배경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읽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비약이 있어도 안 된다. ⚙

# 본론의 전개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ot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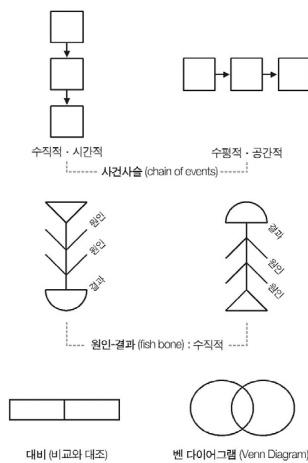
본론은 자연적 전개와 논리적전개로 나누어진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글의 구조도’(그림 1)이다. 신경을 써야하는 전개는 논리적전개인데 그중에서도 귀납법, 연역법의 사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자연적 전개(사건사슬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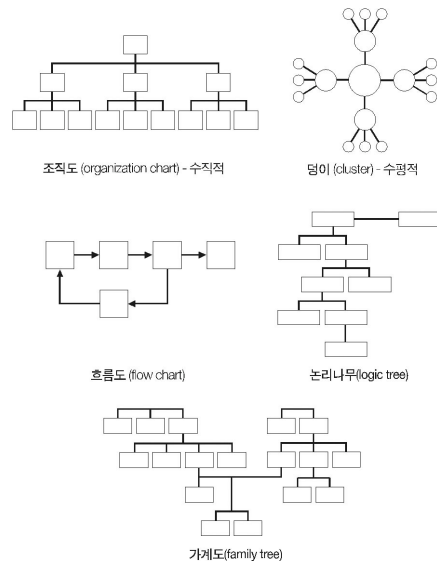
용도: 시간적 전개(역사기록, 활동보고)

공간적 전개(제품설명, 기행문)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이런 순서를 자연적 전개라한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시간이나공간적 순서에 입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인다. 그림으로 된 글의 구조도(그림 **글의 구조도**)에서 사건사슬(Chain of Event) 구조도가 사용된다. 시간적 전개는 수직 사건사슬이고, 공간적 전개는 수평 사건사슬이다.



**글의 구조도**



**글의 구조도**

## 논리적 전개

자연적 전개가 아닌 것은 모두 논리적 전개이다. 논리적 전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수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법, 수평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법, 수직-수평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법이다.

수직논리는 덩이에서 덩이로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비약이 없어야 한다. 비약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는 사람에게 ‘어떻게?’나 ‘왜?’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된다. 즉 구체적인 근거(방법이나 이유)를 대는 것이다. 상위와 하위의 관계는 주종관계이다. 주(主)에서 종(從)으로 가면서 구체화를 심화한다. 점층법, 인과법이 있다.

수평논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균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락과 중복을 없애는 것(맥킨지의 MECE: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이다. 같은 줄에 여러 개의 덩이가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덩이가 두 개만 있는 것이 비교와 대조(이를 합쳐 대비)이고,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열거법이다. 반박, 절충은 대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직-수평논리는 수직과 수평논리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귀납법, 연역법, 흐름도, 논리나무, 가계도가 그 예이다.

### 점층법(사건사슬 구조도-수직)

용도: 단순→복잡(설명)

아는 것→모르는 것(설명)

덜 중요한 것→중요한 것(미괄식 배열, 협상)

중요한 것→덜 중요한 것(두괄식 배열, 보고)

용도에 따라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설명은 상대가 알고 있거나 단순한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잘 안다. 정보의 방향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를 할 때는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한다. 보고를 할 때 아직도 한가하게 시간순으로 ‘배경 및 필요성’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보의 방향이 자신에게 편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적으로 거슬러 중요한 것부터 보고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보고를 듣는 사람은 중요한 핵심내용부터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사슬 구조도(수직)를 쓴다.

참고로 협상이나 외교는 보고보다 단계가 높은 전략적 사항이라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면 손해이다.

### 인과법(원인-결과도)

인과론이다.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배경과 필요성으로 시작하여 결과가 제일 뒤에 나온다. 연구보고서가 대부분 이런 형식이다. 문학적인 글도 전부 인과론이다.

그러나 의사전달의 효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글에서는 달라야 한다. 정보를 다루는 글, 예를 들면 경고문, 사건 기사, 보고문은 결과를 앞에 두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논설문도 결과가 먼저 나온다. 이리기에 앞에서 살펴본 ‘하이, 파이브!’도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이다. 힘1이 결과이고 힘2가 이유(배경 및 필요성)였다. 원인-결과도(fish bone)에서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을 쓴다.

### 대비법(대비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수평적으로 전개한다. 제일 간단한 것이 2개만을 펼친다. 서로 비슷한 것은 비교하고, 서로 다른 것은 대조한다. 이 둘을 합쳐 대비라고도 한다. 대비도가 쓰인다.

### 반박법(대비도)

대조는 다른 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 데 반하여 반박은 틀린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틀림은 다름과 다르다. 구조도는 대비도이다.

## 절충, 양시론과 양비론(벤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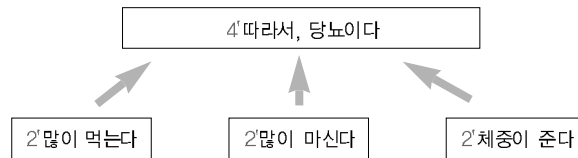
시종일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를 절충하는 형식을 취한다. 논리학에서 변증법인 정-반-합이 이에 해당한다. 둘 모두 정당이라고 인식 쓰는 양시론이나, 둘 모두 틀리다고 주장하는 양비론도 있다. 이를 대인(大人)이 하면 인생을 달관한 자세이고, 소인(小人)이 하면 책임지지 않는 논리전개이다. 구조도는 벤 다이어그램(Venn Diagram)이다.

## 열거법(조직도)

같은 성격을 가진 것들을 중요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또는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로 배열한다. 3개 이상을 펼친다. 많어도 7개를 넘지 않는다. 우리 두뇌가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한계이다. 조직도가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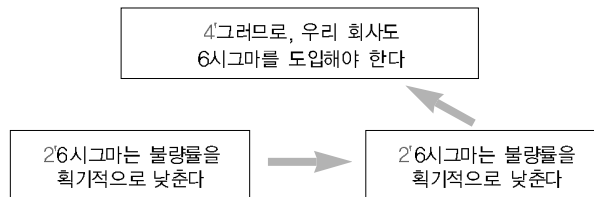
## 귀납법(조직도)

특수한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 낸다. 즉, 여러 사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낸다. 수평적인 자료를 놓고 추리를 동원한다. 구조도는 조직도이다.



## 연역법(조직도, 대비도)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례를 도출해 낸다. 삼단논법이 대표적이다. 구조도는 정확하게 맞는 것이 없다. 수직으로는 조직도, 수평으로는 대비의 형상이라 대비도를 쓴다.



## 흐름(흐름도)

공정과 같은 작업순서를 표시한다. 흐름도이다.

## 논리나무, 가계도(논리나무, 가계도)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 경우(맞거나 틀림, 하거나 안 함, 있거나 없음)로 나누어 그 중 한쪽을 고르고, 고른 것을 또 두 개로 나누어 그 중 하나를 골라나가는 방식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 가계도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나타내는 논리나무라고 볼 수 있다. 구조도는 논리나무(Logictree)와 가계도(Family tree)가 있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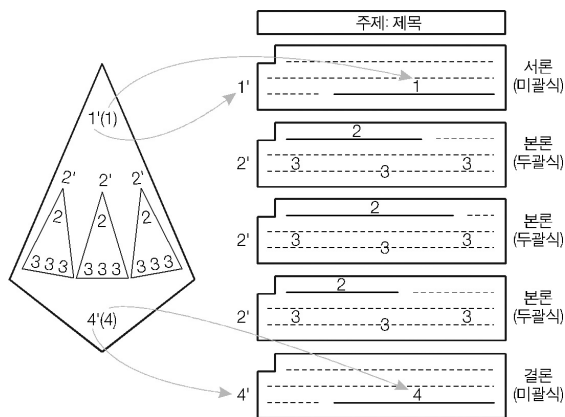
1) 글쓰기는 '무엇을', '어떻게' 적는가 하는 문제라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 때의 '어떻게'는 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수직논리에서 '어떻게'는 논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힘 글쓰기와 수정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글의 논리적 구조를 결정하면 주어진 틀에 맞추어 글쓰기를 한다. 글쓰기가 끝나면 이를 바른 글로 교정하고 가독성이 좋도록 편집한다.

## 글쓰기..... Writing



[그림 1] 5문단 기본에세이의 구조

제갈공명을 모셨다. 셋- 덕으로 무장했다. 그 다음은 근거 하나하나를 다시 뒷받침하는 증명3을 세 가지씩 된다 (예; 도원결의...관우의 활약...장비의 활약...등등 나머지 6개 생략). 문단1'은 주제의 도입부(후한말 어지러운 세상에 왕조의 후예가 떨어질어났다)이고 문단 4'는 주제의 마무리(족을 세우는 위업을 달성했다)가 된다. 이를 글의 구조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에세이가 된다.

## 유비, 삼국 중 초을 세우는 위엄을 달성하다

후한 말 어지러운 세상... 흉건적이 도처에서...

...가난한 왕족의 후예인 유비가 펼쳐 일어났다.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했다. 도원결의....

관우의 활약...

장비의 활약...

제갈공명을 모셨다. 삼고초려...  
적벽대전...  
출사표...  
덕으로 무장했다. 지의 조조...  
용의 장비...  
지와 용의 관우를 능가...  
세상사 뭉치면 헤어지고...후한에서 진으로...  
...유비는 축을 세우는 위업을 달성했다.

미국에 유학 간 한국학생이 에세이를 써 제출하면 선생으로부터 반드시 받는 질문이 ‘주제가 무엇이냐’, ‘논리가 어떻게 되냐’이다. 한국 학생은 표준화된 기본에세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선생은 제목과 문단 1’, 4’의 미괄식 소주제문을 보아도 주제를 파악할 수 없다. 또 선생은 제목과 본문 문단 2’, 2’, 2’의 두괄식 소주제문을 보아도 논리를 찾아낼 수 없다. 한국학생이 글의 구조만 알아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sup>1)</sup>

## 힘글쓰기 과정-4

### 글 고치기…… Editing

기계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바른 글이 되도록 한다. 맞춤법과 같은 주로 문법적인 것이 된다. 우리 같으면 다 음과 같은 사항이다.

#### 바른 글로 교정

- 단어는 맞춤법에 맞는가?
- 문장부호(마침표, 쉼표 등)가 정확한가?
- 단어(one word, one meaning)는 적확히 사용되었는가?
- 주어가 있는가?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하는가?
- 수식어의 위치가 피수식어와 멀지 않는가?
- 한 문장에는 한 의미(one sentence, one idea)만을 담고 있는가?
- 한 문장에는 하나의 구두점만 있는가?
- 한 문장이 20단어 이하인가?
- 한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one paragraph, one topic)인가?
- 문단은 줄바꾸기로 시작하였는가?
- 문단의 시작은 들여쓰기를 하고 있는가?

1) 토플 시험에 쓰기가 포함된다. 쓰기 점수가 잘 나온다고 최근에 주목되는 책(그중에 하나인TEOFL Writing 만점맞가민상홍)을 보면 여기서 소개된 글의 구조로 에세이 쓰기를 권장하고 있다.

- 소주제문의 위치가 문단 앞에 나온 두괄식인가?
- 접속어가 문단 첫머리 소주제문에 있는가?
- 접속어가 뒷받침문장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

## 힘글쓰기 과정-5


### 다시 쓰기(편집하기) ..... Re-Writing

미국의 글쓰기 교육이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목표로 하는 만큼 독자의 가독능력(literacy)에 중점을 맞춘다. 가독성은 ‘쉽게 읽히는 것’이 생명이다. 이러자면 글을 최대한 시각화하여 ‘보이는 글’이 되도록 한다. 이런 글이 바로 신문이다. 따라서 힘글쓰기 과정은 신문사의 편집과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가 된다. 이러다 보니 아예 언론정보학(Journalism)을 글쓰기 교육에 도입하는 고등학교가 많다.<sup>2)</sup> 요즈음은 이런 경향이 초등학교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편집과정은 여럿이 모여 진행한다. 남의 글에 잘못을 지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나쁜 글쓰기 버릇도 고친다.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끝낸 편집결과를 다른 그룹과 교환하여 비평을 하기도 한다.

글이 ‘정확하고, 쉽고, 간결(3C: Correct, Clear, Concise)’ 한지를 확인한다. 글의 구조가 논리적이며, 하나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따져 본다.

#### 글의 구조와 논리를 확인

- 주제가 일관되게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읽을 상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sup>3)</sup>
- 제목이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가?
- 배경설명이 너무 기초적이거나 어렵지 않는가?
-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가?
- 정보가 중요한 것부터 제시되고 있는가?
- 수직논리에 비약이 없는가?
- 수평논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글을 읽다가 되돌아 와서 읽어야 하는 구절은 없는가?
- 정확한가?
- 간결한가?
- 중복된 표현은 없는가? 

2) [http://highschooljournalism.org/guidance/schoolinf\\_index.cfm](http://highschooljournalism.org/guidance/schoolinf_index.cfm), 500여 개의 고등학교가 등록되어 있다.

3) ‘I’로 시작하는 문장이 3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문장은 상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 힘글쓰기 실전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이제까지 힘글쓰기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힘글쓰기 실전이다. 손가락을 펴 놓고 하는 글 쓰기 훈련은 그 효력이 강력하다. 통상 서너 문장만 넘어 가도 많이 틀리는 미국 아이들도 '하이, 파이브!' 기법만 익히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간단한 손가락 기법만 활용해도 직장생활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직장에서 하는 보고서 쓰기, 발표하기, 답변하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후감 쓰기, 면접에 이르기까지 의사전달이라면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몇 가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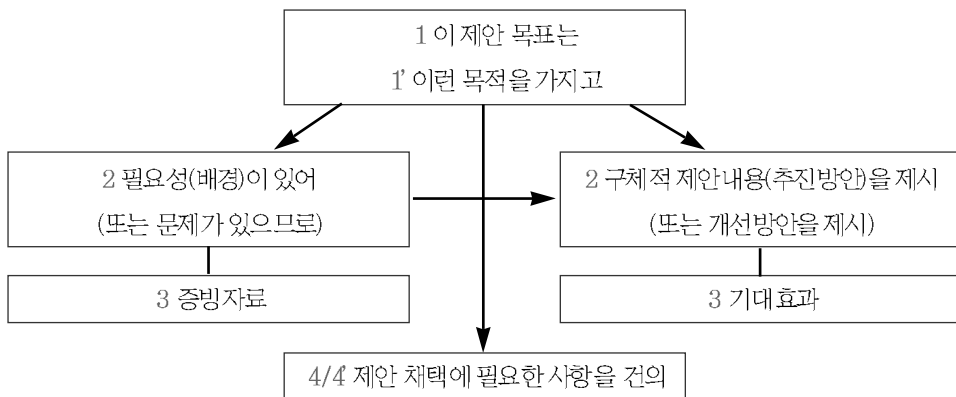
## 쓰기, 발표에 적용하기-a

###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를 쓰려고 종이를 펼쳐들면 무엇부터 적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직장인이 많다. 정보의 배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정보의 배열을 어떻게 하겠는가?

건의사항, 기대효과, 개선 방안, 목표, 목적, 문제점, 배경, 제안 내용, 증빙자료, 추진방안, 필요성 (가나다 순)

대부분의 제안서가 배경 및 필요성으로 시작한다. 잘못된 것이다. 힘글쓰기 원칙을 적용하면 쉽게 순서를 적용할 수 있다. 우선 1-2(3-3-3)-2(3-3-3)-4 형식을 취하고 1-2-2의 논리를 3단논법인 연역법이나 대조법으로 한다. 즉, 그림으로 표시되는 제안의 구조와 논리를 제안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안 목표(1: 주장)
- 제안 목적(1': 주장의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또는 문제점(2: 이유) - 증빙 자료(3: 자료)

- 제안 내용 및 추진방안 또는 개선방안(2: 방법) - 기대효과(3: 자료)
- 건의사항(4/4': 재주장)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모든 보고서는 한 장에 적어 올리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네 가지이다.<sup>1)</sup>

- 문제점
- 사실관계
- 분석
- 결론 또는 권고

이 보고서의 유형도 1-2-3-4로 이루어진 '어떻게' 형식이다. 문제점(주제)-사실관계(방법)-분석(자료)-결론(주제)이다. 레이건이 미국에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보고서 하나도 의사전달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 쓰기, 발표에 적용하기-s

### 발표

발표(presentation) 기법으로 PREP법이 있다. 처칠이 애용한 기법이다.

- Point(Purpose): 청중에게 요구사항을 지적
- Reason: 이유제시
- Example: 사례로 입증
- Point(Purpose): 요구사항 재강조

설득을 하려면 요구를 왜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타당함을 사례를 들어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PREP 법이고, 정확히 1-2-3-4로 이루어진 '왜' 형식이다. PREP법은 상대를 짧은 시간에 설득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PREP법을 많이 쓴다. 어린이의 주장도 정확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 밥 줘(1)
- 배고파(2)
- 굶어 죽겠어(3)
- 빨리 줘(4)

1) 『문장표현의 공식』(문장연구사, 장하늘) 119쪽에서 인용.

## 힘글쓰기 실전 2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 쓰기, 발표에 적용하기-d

#### 답변, 면접

토론을 하거나 답변할 때도 하이,파이브!, 1-2-3-4는 예외 없이 그 성능을 발휘한다. 다음 예를 보자.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TV 토론에서 두 후보의 답변방식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정후보: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노후보: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 생각한 것이고,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75년과 83년에 검토되었는데 국토의 중앙인 충청권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왜 필요하나 하면 수도권 과밀로 인해 교육·환경·교통문제와 집값 폭등으로 서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여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노후보: 정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시지요?

사회자: 이번에는 답변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후보: 교육부 이상주 부총리는 울산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저는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잘 아는 사 이인데 교육부를 제가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기능을 맡고 교육의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 주지는 것입니다……. (1분 시간초과)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도 주민직선에 의해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예는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에서 이미 인용한 적이 있다. '답변이나 보고는 결론부터 먼저 하라'는 주제에서 그 실례로 소개한 것이다. 노후보는 결론부터 답변했고, 정후보는 배경부터 설명했다.

저자가 힘글쓰기를 알고 난 후 이 토론을 다시 보니 왜 노후보의 답변이 저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바로 PREP법이기 때문이다. 1-2-2-4로 이루어진 '왜' 형식이다.

-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 생각한 것이고,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1:주장)
- 이미 75년과 83년에 검토되었는데 국토의 중앙인 충청권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조사되었습니다.



(2:이유 -배경)

- 행정수도 이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수도권 과밀로 인해 교육 · 환경 · 교통 문제와 집값 폭등으로 서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이유 -필요성)
- 지방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여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4:주장)

노후보의 답변에서 힘3인 사례가 없지만 이는 주어진 시간이 1분으로 워낙 짧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후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배경설명으로 시작하였다. 자세하다 못해 징항하기까지 하다 보니 시간을 초과하였고 결론에 해당하는 답변은 마지막에 시간에 쫓기어 나왔다. 2와 3이 실종되고 없다. 근거와 그 근거를 증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 교육부 이상주 부총리는 울산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저는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잘 아는 사이인데 교육부를 제가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기능을 맡고 교육의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와 학교에 주자는 것입니다.(1)
-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도 주민직선에 의해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노후보의 답변은 직선적이다. 남성적인 화법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사무적인 방법이다. 반면에 정후보의 답변은 우회적이다. 여성적인 화법이다. 사교적인 의사소통방법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답을 할 때 결론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왜 그런지 근거를 대고, 이를 입증해야 상대가 납득을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명한 이치를 학생들은 잘 못한다.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 대학졸업생의 답변능력은 한결같이 수준 이하이다. 다음의 예와 같이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질문: 입사 후 우리 회사에서 실현하고 싶은 꿈을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 자아실현입니다.  
 질문: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답변: 열심히 노력해서 유비쿼터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답변이 힘1과 4에서 끝난다. 힘2와 3을 동원할 줄을 모른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답변을 할 때 왼손가락 5개를 활짝 펴고 ‘어떻게’ 형식\*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가면서 답변하면 된다.

0: (질문자의 의도 분석, 핵심단어 도출, 순서배열, 답변태도 결정)  
 1(주제): 자아실현입니다.

1) 면접에서의 답변은 ‘어떻게’ 형식이다. 발표처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방법): 저는 바이오시계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계가 혈당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혈당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즉각 경고하는 시계입니다.
- 3(자료): 이를 위해 대학에서 '바이오시계' 동아리를 결성하였습니다. 혈당을 피부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탐색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4(주제): 제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회사와 더불어 발전하고 싶습니다.

## 쓰기, 발표에 적용하기-f

### 컨설팅

컨설팅도 별것이 아니다. 문제를 밝혀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이 해답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 '왜' 형식이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만 이해하면 컨설팅 보고서 쓰기도 어려울 것 없다.

컨설팅회사가 사용하는 논리적인 사고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맥킨지의 *Logical Thinking*<sup>2)</sup>은 일본사람이 쓴 것을 우리가 번역한 책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도 힘글쓰기의 원리차원에서 이해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 맥 킨지의 'Logical Thinking'

답변(1): 컨설팅은 문제에 대한 답변이므로 답변을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에 함몰되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빠져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와 이를 답변으로 제시하는 잘못을 많이 범한다.

근거(2)-증명(3) 제시: 논리를 수직으로 구체화할 때에는 'Why so', 'So what' 이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한다. 즉, 논리가 '비약' 되거나 도중에서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한다. 논리를 수평으로 구체화할 때에는 MECE(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효과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우리말로 간단히 하면 '중복과 누락'을 없애라는 것이다.

답변 강조(4): 답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국은 초등학교에서 힘글쓰기 교육만 제대로 익혀도 직장에서 보고서나 기획서 쓰기의 기초는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맥킨지 컨설팅이 자랑하는 Logical Thinking의 MECE 기법을 초등학교에서는 수평으로 균형을 이루라는 것(balanced)으로 가르친다. ●

2) 『로지컬 씽킹』, 테루야 하나코 외, 김영철 역, 일빛.

## 힘글쓰기 실전 3

임재훈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 쓰기, 발표에 적용하기 - g

#### 논술

논술은 자기 의견을 주장으로 내세워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글이다. 우리 나라 학생은 논술을 정답 쓰듯 하려니 좋은 논술을 쓰지 못한다. 논술도 ‘왜’ 형식의 글쓰기를 하면 의외로 쉽게 쓸 수 있다. 즉, 정답을 찾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즉 논거)를 제시하고, 이 논거를 사실/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증명(즉 논증)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논술, 이렇게 간단하다. 1' - 2' - 2' - 2' - 4' 의 잘 쓴 논술문을 소개한다. 주제문과 소주제문의 위치가 정확하다.

#### 인간중심의 과학기술

에리히 푸롬의 말처럼 “과학이 우리를 전지(全知)하게 하고 기술이 우리를 전능(全能)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믿을 만큼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긍정적인 면만큼 동시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아누스의 얼굴’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오염이나 새로운 질병의 출현, 전쟁무기로 인한 인류멸망의 위기 초래, 비인간화와 인간소외현상 등을 들어, 과학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인간성을 거역해 온 측면이 있다면, 인간중심의 과학기술이 이룩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첫째, 환경오염과 핵전쟁의 위협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생긴 피해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르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이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해결해야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지시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핵무기 등을 생산하는 일을 금지시키려는 국제적인 연대가 강화되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둘째, 현대과학으로 인해 생긴 질병보다는 과학발전에 힘입어 퇴치된 질병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최대의 난치병인 암이나 에이즈조차 과학의 힘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현대과학의 부산물인 새로운 질병도 머지않아 과학의 힘으로 발병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라 경쟁이나 비인간화, 인간소외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반과학주의에 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를 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여가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과학기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적합성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과학주의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박용성<sup>1)</sup>

이 논술문의 단점은 주제문과 소주제문이 문장으로서 길다는 점이다. 또 다른 단점은 본문의 문장구조가 1-2-3-4인 PREP법(주-이-사/예-주)이 아니라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본문만을 예로 다음과 같이 고쳐 보면 아주 훌륭한 논술이 된다.

첫째, 환경오염과 핵전쟁의 위협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생긴 피해라 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르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것이다.(1) 이는 이용자들이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해결해야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지시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4) 최근에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핵무기 등을 생산하는 일을 금지시키려는 국제적인 연대가 강화되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3)

첫째, 과학기술의 부작용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르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것이다.(1) 기술 자체는 본래 가치중립적이어서 사람이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2) 최근에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핵무기 등을 생산하는 일을 금지시키려는 국제적인 연대가 강화되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3) 과학기술의 부작용은 이용자들이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해결해야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지시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4)

## 쓰기, 발표에 적용하기-h

### 독후감

대학에서 4학년 2학기를 강의하다 보면 학기 도중에 취업을 하는 학생이 생긴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환한 얼굴로 신고를 한다. 그런데 다음 주에 풀이 죽어 나타난다. 신입직원 연수통보를 받았는데, 회사가 독후감을 써 오라는 것이다. 학교에 다닐 때 한 번도 제대로 독후감을 써 보지 못했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이 3분 특강을 해 주면 금세 그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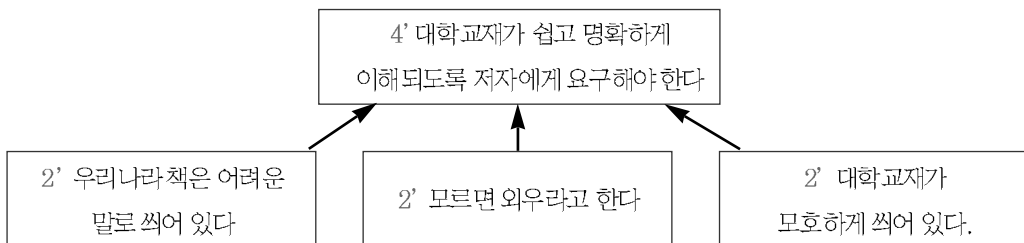
1) 「논술을 알면 대학이 보인다」, 박용성, 한마당, 251쪽.

## 독후감 쓰는 요령

독후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단순나열식, 중점나열식, 자기생각적기식이다. 단순나열식은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는 것이다. 목차에 살을 조금씩 붙인 형태인데 하급이다. 책에도 ‘80·20의 파레토 법칙’<sup>2)</sup>이 적용되는데 어느 부분이 20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분능력이 없는 글쓰기이다. 중점나열식은 ‘정답쓰기’에 가깝다. 즉, 중요한 요지 20을 찾아내어 나열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적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되어도 중급이다. 자기생각적기식은 자신이 책을 읽은 후의 느낌을 하나의 주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주제 3개를 찾아내어 기본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이래야 상급이다. 독후감이라는 글자의 뜻도 책을 읽고 그 느낌을 글로 쓰라는 것이지 책을 요약하거나 정답을 쓰는 것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명을 대라는 것이다.

독후감은 요약과 다른데 학생들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 독후감을 내라고 하면 요약문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요약도 3가지가 있는데, 이조차 우리는 학교에서 구분해 배우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에서는 요약해서 글을 쓰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요약하기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이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소설처럼 두툼하게 되어 있어 학생은 이를 전부 읽어야 학습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읽은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공부가 된다. 처음에는 사진찍기식으로 하는 단순요약, 다음은 요점을 뽑아 줄이는 중점형요약,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어 이를 설득력 있게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자기식요약으로 단계를 높여간다. 이런 요약 공부가 끝난 후에 미국 학생에게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학생은 당연히 자기생각적기식 독후감을 쓰는 것이다.

잘 쓴 독후감을 소개한다. ‘5문단-기본에세이’ 형식이다. 주제문과 소주제문이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좀더 간결하게 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참고로 이 독후감의 구조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귀납법이다. ㉠



### 독자의 권리선언

창조적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창조적인 글쓰기를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성용은 그의 역서 『사회과학자의 글쓰기』(하워드 베커 저, 이성용·이철

2)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V. Pareto)는 “결과의 80%는 원인의 20%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백화점에서 매출의 80%를 핵심고객 20%가, 직장에서 80%의 일을 20%의 근로자가 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우 역)에서 그의 역자후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왜 창조적인 글쓰기가 힘든가”의 사회적인 요인을 찾으려 한다.

창조적 지식인은 창조적인 글을 통해서 나온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책을 독자를 위해서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많은 책은 저자들의 유창한 지식을 자랑하거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어려운 말로 써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교재를 보라. 학부생들은 그들이 배워야 할 지식을 충분히 소화해서 대학을 졸업하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듯싶다. 현실에서 많은 기업들은 대학졸업생을 반기지 않는다. 그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식을 단순히 암기했을 뿐 어떻게 지식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는 정보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험 때 압박해서 달달 외우는 관행은 많은 대학생들이 때가 되면 겪는 의례이다.

“모르면 외워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그런데 교과서 또는 대학교재로 써어진 글은 반박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와 같은 것일까? 그래서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일까? 그렇지 않다면 “모르면 외워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권위라는 이름으로 가리려 하는 게 아닌가. 학생들은 초·중·고 시절부터 많은 교재를 사용한다. 학생들의 교재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며, 심지어 대학생이 되어도 그런 믿음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학생들이 보는 책들이 모호하고 때때로 틀리게 써어 있어도 “모르면 외워라”라는 말은 하나의 경구처럼 들린다. 우리는 대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책을 읽는다. 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써어져야 할 글이 모호해서 이해하기 힘들게 써어 있다면 독자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상당수의 대학교재는 이해하기 쉽게 써어지기보다는 반대로 모호하게 써어진 경우가 많다. 이성용은 『사회과학자의 글쓰기』의 역자후기에서 『조사방법론』(여론조사 및 각종 사회통계의 기본지침을 설명한 책) 교재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써어져야 할 책으로 보고, 저명한 학자에 의해 써어진 대표적인 조사방법론 교재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조사방법론 교재들은 그 분야를 전공한 학자가 보아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며, 정의(definition)를 잘못 내린 부분도 있다고 한다.

이성용은 그의 역서를 통해 먼저 글쓰기가 제대로 되어야만 창조적이며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인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명확하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릴 때에만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지식독점에 의한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저자와 출판사에게 실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글을 쓰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그들이 배우는 교재가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자와 출판사에 요구해야 한다.

string72 현

# 글쓰기 교육의 이론 변화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글쓰기 교육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법에 맞는 올바른 문장, 독자에게 소통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작문을 지도’ 하며 맞춤법·띄어쓰기와 문장구성의 원리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받은 교육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글쓰기도 목표를 향해 나가는 문제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문을 지도’ 하기 위해 전략<sup>1)</sup>을 세워 주제선정-자료수집-초고-퇴고 등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요즈음 많이 강조되는 교육이다.

미국은 글쓰기 교육을 결과위주에서 급격히 과정위주로 옮기고 있다. 그렇다고 글쓰기 과정만 중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워낙 그 동안 결과위주의 글쓰기를 지도해 왔으니 이런 편식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미국의 글쓰기는 목표와 과정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글쓰기를 결과중심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글쓰기의 전략(정희모, 들녘)’이 과정중심의 글쓰기를 우리나라에서 다룬 최초의 책이다. 출간되자 단숨에 5만부가 팔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과정중심의 글쓰기를 기다려 왔다고 볼 수 있다. 글쓰기 과정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글<sup>2)</sup>을 한편 소개한다. ①

## 과정중심 글쓰기 - 미숙한 필자와 원숙한 필자

### 1) 미숙한 필자의 쓰기과정

대개 글쓰기를 싫어하는 미숙한 필자들은 계획단계에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글쓰기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글의 내용을 구상하여 개요를 작성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글쓰기를 미룰 수 없는 그 시점까지 글쓰기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할 때도 글의 수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글을 읽게 될 사람은 누구인지, 독자는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기대할 것인지, 이 글을 쓰는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이 글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하는 수사적 문제를 고려하기보다는 막연한 생각의 단편만을 자기중심적으로 쏟아낼 뿐이다.

일단 글쓰기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첫 문장을 시작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시행착

1) 글쓰기는 쓰기와 고치기가 여러번 반복된다. 준비가 미숙할수록 시행착오가 많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2) 원진숙(서울교육대학교) 교수의 글이다. 글쓰기 과정을 보기 드물게 알기 쉽게 설명한 좋은 글이다.

오 전략에 따라 첫 문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가 하면, 단번에 완벽한 초고를 써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자료수집이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메모 없이 글을 써야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에만 의존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미숙한 필자들은 대개 글쓰기를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보다는 글을 쓰는 데에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앉은 자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중심으로 글을 완성해 버린다. 항상 시간에 쫓겨서 글쓰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글을 꼼꼼히 고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개 초고가 그대로 제출본이 된다.

## 2) 능숙한 필자의 쓰기 과정

글쓰기를 즐겨하는 능숙한 필자들은 '영감에 의존한다거나 처음부터 완벽한 초고를 쓰려고 하기' 보다는 글쓰기 과정 자체를 일련의 목표지향적 활동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직업의 구상단계부터 자기 나름대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글의 핵심적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고의 흐름을 전개해 나간다.

이들은 이렇게 일단 글쓰기의 주제와 방향이 잡히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찌감치 글쓰기 과정에 착수하여 계획단계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 주제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찾아서 읽고 이를 바탕으로 틈틈이 메모를 하고 개요를 작성한다.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사고를 자료를 찾아서 읽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다.

능숙한 필자는 미숙한 필자와 달리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수사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보인다. 과제를 부과한 담당교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글을 읽게 될 독자가 기대하는 바는 뭘까, 이 글을 쓰는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가닥을 잡아 나간다.

능숙한 필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식의 완벽한 초고쓰기 전략에 의지하지 않는다.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고심하기보다는 고쳐쓰기단계를 염두에 두고 글에서 해야 할 이야기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초고형태로 글을 쓴다. 미리 마련된 글의 개요와 메모에 의지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이 좀처럼 원래 목표했던 중심생각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능숙한 필자들은 계획단계 못지않게 고쳐쓰기단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띄어쓰기, 맞춤법 등의 기계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낱말을 적절하게 썼는지, 문장을 어법에 맞게 썼는지, 단락을 중심으로 사고를 제대로 전개해 나갔는지, 주제 구성과 관련하여 글의 내용적 통일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정한다.

원진숙(서울교육대학교)



## 우리글의 문장 구조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우리글은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어 의사전달을 간략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어가 없어도 읽는 사람은 앞뒤 문맥을 보면 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주어가 없으면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은 핵심 단어만 읽어도 이해하지만 그 사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나는 문장에 주어를 반드시 넣기를 권한다. 문화적인 글은 주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읽기에 겹겹스럽겠지만 실용적인 글은 유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글을 쓸 때 주어만 제대로 찾아 써도 글쓰기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소 연구원에게 자기가 예전에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주어를 정확하게 넣는 연습을 시켰더니 글의 양이 30%나 줄었다. 글이 정확해져서 군더더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문장에 주어를 찾아 넣는 연습을 시킨다.

먼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문장 6개를 주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테스트한다. 여러분도 같이 해 보기 바란다.

### 우리 문장 실력 테스트

예제 1 : 토끼는 꼬리가 짧다.

예제 2 : 원자력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가스의 배출이 없다.

예제 3 : 나는 그가 좋다.

예제 4 : 나는 영화가 보고 싶다.

예제 5 : 한국은 울산이 살기가 제일 좋다.

예제 6 : 나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

몇 개가 맞는가? 답은 전부 맞다. 한 개 맞추었다고 자탄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대학생과 직장인의 평균 실력은 하나 이하이다.

문장에 주어를 넣는 연습은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키는 것인데 대학생과 직장인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영어는 문장에 5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글에는 문장에 몇 형식이 있는지 모른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우리글은 3형식이 있다. 3분이면 배울 수 있다. 다음은 우리글의 기본문형이다.

### 우리글의 기본문형

1형식 : 나는 학생이다.

바람이 분다.

하늘은 푸르다. (주어+서술어)

2형식 :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주어+목적어+서술어)

3형식 : 나는 어른이 된다.

나는 선생님이 보고 싶다.

그는 철수를 양자로 삼았다. (주어+보어+서술어)

1, 2형식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인데 문제는 3형식이다. ‘어른이’, ‘선생님이’는 외형상으로는 주어로 보이나 실제로는 보어이다. 주어를 보완해 주는 주격보어이다. ‘양자로’는 ‘철수’라는 목적어를 보완해 주는 목적격보어이다.

**복잡한 문장은 기본문장을 확장한 것이다. 홀문장 안에서 확장하는 예문이다.**

(1) 야! 나는 학생이다. (독립어)

(2) 튼튼한 나는 유별나게 힘든 운동을 한다. (관형어)

(3) 나는 선생님이 무척 보고 싶다. (부사어)

### 겹문장으로 확장하는 예문이다.

(1)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2) 여름이 오니 녹음이 우거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3) 이책이 재미있음이 분명하다.

(명사절, 주어절로 안긴 문장)

(4) 나는 이책이 재미있음을 알았다.

(명사절, 목적어절로 안긴 문장)

(5) 이책이 재미있다는 소식을 나는 들었다.

(관형절로 안긴 문장)

(6) 나는 이책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인용절로 안긴 문장)

(7) 이 책은 재미가 있다.

(서술절로 안긴 문장)

(8) 나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부사절로 안긴 문장)

는 돈은 많다”의 차이이다. 두 번째 것은 비교적으로 ‘그는 돈은 많은데 다른 것은 많지 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문법은 이렇게 간단하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기로 한다. “철수만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며 어떤 문형일까. 헛갈린다.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철수 혼자 바보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바보라는 뜻이다.

(2) 철수뿐만 아니고 모두 바보라는 뜻이다.

두 가지 모두 맞는 해석이다. 구조적으로 이 문장은 이중으로 해석이 되게 되어 있다. (1)은 “바보가 아니다”를 명사절로 보는 경우이다. (2)는 ‘바보가’를 보어로 보는 경우이다. 이중주어를 주장하는 학자는 문법을 간단하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러한 예문에 부딪치면 답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이 책은 재미가 있다’에서 ‘재미’는 명사절, 서술절에서 주어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보다 간편하게 이중주어문으로 해석한다. 즉, 문장은 주어가 두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보어도 이중주어문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그는 배가 아프다’에서 ‘장난이’와 ‘배가’를 또다른 주어로 본다.

다시 앞의 ‘우리문장 실력테스트’로 돌아가자. 이제 이들 이외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제 1과 예제 2는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다. 예제 3과 예제 4의 ‘그가’와 ‘영어’는 보어이거나 2중주어이다. 예제 5는 3중주어문이다. 2중주어가 있으면 3중주어도 있다. 예제 6에서 ‘기술은’은 토씨가 ‘은’이라 외형상으로 주어로 보이나 ‘은’은 비교격조사로 주어와 목적어를 비교할 때 쓴다. “그는 돈이 많다”와 “그

## 문장도 공학이다

임재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나는 글의 생산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글을 관찰해 왔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글에 문장마다 주어만 찾아 넣어도 그 효과는 놀랍다. 이게 바로 공학적인 접근이다. 글도 공학과 만나면 쓰기 쉽고, 읽기 쉽고, 자동화까지 된다.

물론, 말과 글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학이 아니다. 프로그램은 논리가 하나라도 틀리면 작동하지 않지만 언어는 그렇지 않다. “문 닫고 들어오라”는 말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해한다. 따라서 글에 공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한글을 이대로 팽개쳐 두기에는 문제가 심하다.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한글은 글자 하나 하나가 과학인데 문장은 지극히 비과학적이다. 훈민정음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정보화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면서 자음과 모음의 리듬에 감탄한다. 일본과 중국의 자판을 한번 보라. 우리가 얼마나 세종대왕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글이 문장으로 넘어가면 한꺼번에 한글문자의 장점을 까먹어 버린다. 문장에 주어가 없어도 된다. 또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담은 서술어가 제일 뒤에 나온다. 주어와 서술어가 제 몫을 못하니 목적어가 혼자서 힘겹게 문장을 끌어간다. 그러니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나 쉬운 내용은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가지만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지거나 논리가 정교해지면 읽는 사람은 내용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영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초장에 튀어나와 의사소통에 아주 강한 언어이다.

둘째,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정보화시대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기업과 개인은 날로 속도와의 전쟁이다. 속도에 적응하지 않으면 금방 낙오한다. 그런데 서양의 문장은 두괄식이고 연역식(삼단논법)이라서 속도에 맞는 형식인데, 동양의 전통적인 문장은 미괄식이고 귀납적이라 중요한 정보가 제일 뒤에 나온다. 이런 미괄식은 문학적인 글에 맞는 것이어서 정보시대에는 불리하다. 정보의 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제목만 읽는다. 예전처럼 양이 많거나 읽기 어려운 글은 눈길도 안 준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은 더욱 더 ‘핵심 내용을, 상대가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게’<sup>1)</sup> 써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글쓰기 기법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앞으로는 지금하고 있는 의사소통조차도 고전적이 되어 우리는 더욱 빠른 의사소통기술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셋째, 한글을 외국어로 자동 번역하는 데 효율이 매우 낮다. 사무적인 글은 생산성이 최우선이다. 인터넷에서는 영어가 금방 국어로 기계번역되어 나온다. 영어가 자동번역되는 비율이 60~65%이다. 그런데 거꾸로 한글의 영어번역은 되지 않는다. 워낙 성공률이 낮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한글이 영어로 자동번역되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쉬운 대로 알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문화를 일일이 영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글의 세계화이다.

1) 기술글쓰기(technical writing)의 원리이다.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마이넨, 임재춘)를 참고하기 바란다.

세계 일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에서 언어는 중요한 경쟁요소이다. 우리글이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의 구조, 문단구조, 문장 구조를 표준화하여 이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보전달이 빠르고 언어조차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문장공학이다.

글은 정신의 산물이다. 이를 기계적인 틀에 넣는 것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저자는, 글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종류에 맞추어 최적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글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소설, 희곡, 시와 같은 문학적인 글이 있는가 하면 공문서, 보고서, 제안서, 안내서, 서신, 논문, 제품설명서, 투자유치서와 같은 실용문이 있고 논설문, 논술문, 수필과 같이 두 가지 영역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문학적인 글은 감동이나 재미를 주기 위한 글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Impress’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고 한다. 한편 실용문은 의미를 정확, 명료,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쓰는 글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Express’라고 하는데 3C(Correct, Clear, Concise)로 대변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글을 쓸 때 글은 아름다워야 하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글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런 문학적인 글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지기에 결론이 제일 나중에 나온다. 탐정소설이나 추리소설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결론을 알지 못해 매우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직장에서 쓰는 글은 달라야 한다. 회사에서 사장에 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끝까지 숨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쎄! 재미있지요, 놀랐지요.” 했다가는 목이 몇 개 있어도 남아나지 못한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쓰는 실용적인 글은 결론부터 먼저 나와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다. 다음 논문의 제목을 보라.

부산 민락동 수산시장에서 구입한 봉장어의 고래회충  
유충 감염 상황  
인제 의대생의 우울도 연구

논문을 끝까지 읽어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호기심 유발제목이다. 이런 현상은 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이 아니다. 국책은행과 정부투자기관의 보고서도 형편은 똑같다. 위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고치면 제목만 보고도 누구나 내용의 핵심을 알 수 있다. ⚙

신선도 낮은 봉장어(아나고)회 위험 - 고래회충이  
내장에서 살로 이동  
인제 의대생 우울도는 일반 학생과 비슷

#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목표로 하는 글쓰기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우리가 글을 못 쓰는 이유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글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대부분이 문학적인 글쓰기이다. 실용적인 글을 쓰기 위해 정보는 중요한 것부터, 표현은 ‘정확·명료·간결’하게 하라는 교육이 없었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이공계 대학생도 1년 동안 교양강좌 형식으로 두꺼운 ‘문학적’인 글쓰기 책을 끼고 다닌다.

실용적인 글쓰기는 문학적인 글쓰기와 구분하여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실용적인 글은 미국처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목표를 두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내용을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단계가 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쉬운 한글’이라는 법령의 제정이다.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글을 쓸 때, 되도록 어렵게 써 권위를 세웠다.<sup>1)</sup> 거기에서 단어의 뜻을 모호하게 중의적으로 하고, 분량도 두껍게 해서 상대를 헷갈리게 했다. 자기가 남을 골탕먹이는 것은 기분이 좋은데 남의 글을 읽자니 죽을 맛이였다. 더 이상 이러지 말자는 분위기가 일어났다. 어려운 언어는 국력의 낭비임을 자각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1978년의 ‘쉬운 영어법(Plain English Act)’<sup>2)</sup>이다. ‘연방직원은 모든 규약을, 그에 관여하는 이가 이해하도록 쉬운 영어로 쓸 것을 유념할 것’으로 규정했다. 어려운 법률이나 행정문서로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 되었다. 이제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학교가 쉬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도 ‘쉬운 일본어법(Plain Japanese Act)’을 준비중이다. 기업은 정부에 앞서 스스로 ‘쉬운 일본어’ 과정을 만들어 교육하고,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2만 명 이상의 Technical Writer(기술 문장사)가 고민하고 있다.<sup>3)</sup>

우리도 ‘쉬운 한글법’을 제정해야 한다.<sup>4)</sup>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 『사회과학자의 글쓰기』, 하워드 베커, 이성용·이철우 역.

2) 대통령령 12044호(1978, 3. 23).

3) 장재성의 글(『한글학회지』 2004.12호)에서 미국과 일본의 내용을 발췌.

4) 장재성의 주장(『한글학회지』 2004.12호)이다. 장재성은 문장공학에 평생을 바치고 있다. 매년 서너 차례 일본을 오가며 일본문장을 속속들이 연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우리문장을 보급하기 위해 출판사(문장연구소)를 차려 10여 권의 책을 발간하였으나 남은 것은 빛과 나날이 늘어 가는 모습이다. 쉬운 한글법이 제정되어 장재성의 평생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2006 | 10 화학세계 107

## 직장에서 글쓰기 - 총정리 편

임 재 춘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 tec-writing@hanmail.net

직장인은 하루 종일 글을 쓴다.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이것이 글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다. 그럭저럭 써서 상사에게 가져가면 상사가 새빨갛게 고친다. 최고결재권자의 취향이 해답이다. 이래서야 직장 경쟁력이 말아 아니다.

직장인이 기획서·제안서는 물론이거니와 신문의 보도자료와 기고문까지 잘 쓰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글뿐 만이 아니고 말로써 하는 발표·토론·면접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쉽고도 효율적인 의사전달기법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문화적인 글을 다루는 전문가는 ‘단연코 없다’고 한다. 글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소위 ‘3다(3多)’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걸 너무 어렵다. 마치 도를 연마하는 과정과 같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쉽게 배워서 활용하는 글쓰기 비법은 없는 것인가? 나는 ‘있다’고 본다. 그것도 어렵지 않게.

직장인이 글을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초급단계)은 글쓰기의 목표를 ‘효과적인 의사전달’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직장인이 글쓰기에 약한 이유는 학교에 다니면서 주로 재미와 감동을 위주로 하는 문학적인 글짓기를 해 보았을 뿐이다. 실용적인 글을 쓰는 교육이 없었다. 글은 아름다워야 하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학적인 글은 잘 그린 그림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러나 그림 대신 약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약도는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다.

약도는 효과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의사전달 수단이다. 글도 약도처럼 꼭 필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표현한다. 즉 ‘주요 사실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면 된다. 이게 기술글쓰기(Technical Writing)기법이다.

직장인이 글을 잘 쓰기 위한 두 번째 조건(중급단계)은 글의 구조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글의 구조를 ‘힘글쓰기(The Power Writing)’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킨다. 힘글쓰기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실용적인 글쓰기가 채택하고 있는 글쓰기 기법이다.

미국 학생이 16년간 학교에서 배운 힘글쓰기를 우리는 한번도 접해 보지 못했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그 원리를 터득하느냐가 문제이다. 쉬운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Power writing’을 검색하는 것이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다. 이것이 어려우면 정보의 배열을 무엇을(주제 / 주장 1) - 왜(근거; 이유) / 어떻게(근거; 방법 2) - 자료/의견/사실/예(증명 3)로 하기만 해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많은 직장인이 목표 및 목적(주제 1)을 앞에 두지 않고 배경,

필요성 및 문제점(근거; 이유 2)을 먼저 적는 타성에 젖어 있다.

글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일단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기계적인 글을 쓰면 글쓰기 기본은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만의 기교를 보태면 개성 있는 좋은 글쓰기가 된다. 요리로 치면 요리책을 먼저 읽어 보고 난 후에 요리의 실무를 익히는 것과 같다. 이런 글쓰기 공부 방법은 효과가 매우 좋다.

직장인이 글을 잘 쓰기 위한 세 번째 조건(고급단계)은 글쓰기가 과정중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글쓰기 교육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법에 맞는 올바른 문장, 독자에게 소통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작문을 지도’ 하며 맞춤법·띄어쓰기와 문장구성의 원리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받은 교육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글쓰기도 목표를 향해 나가는 문제해결과정으로 보고 글쓰기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요즈음 많이 강조되는 교육이다.

미국은 글쓰기 교육을 결과위주와 과정위주가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쓰기를 결과위주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막 옮겨가고 있다. 과정중심의 글쓰기를 다룬 ‘글쓰기의 전략’ (정재희 지음)이 출간 즉시 5만부가 나간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과정중심의 글쓰기에 목말라 있었다는 증거이다.

과정중심의 글쓰기는 주제선정-자료수집-초고-퇴고 등의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준비가 미숙할수록 시행착오가 많기에 이를 줄이기 위해 전략을 도입한다. 전략도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빌린다. 따라서 편집회의를 통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쓰기가 끝나면 의사전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시 점검하는 교정과정을 거친다.

이제까지 직장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현장에서 무수히 ‘깨져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글의 목표를 효과적인 의사전달에 두고 글의 원리(힘글쓰기)를 이해한 후에 약도 그리듯이 ‘주요사항을 알기 쉽고 간결’ (기술글쓰기)하게 쓰면 되는 것이다. 거기다 주제선정-자료수집-초고-퇴고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면 금상첨화이다. ●